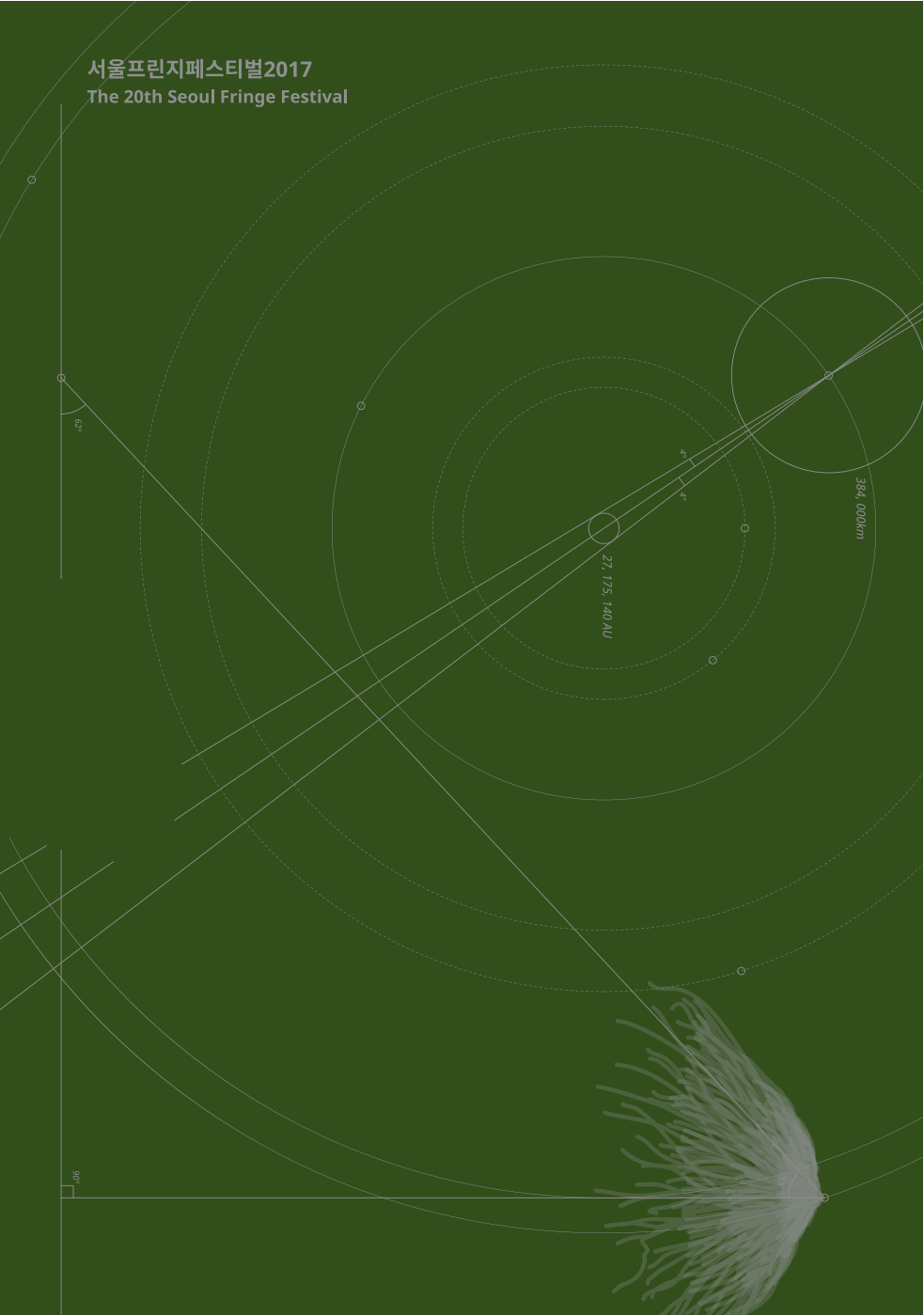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7
The 20th Seoul Fringe Festival



신기루 같은 뜻밖의 여행, 프린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7월 여름,
월드컵경기장 문이 열리면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경기장은 무대가 되고
예술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자유로움과 예술적 경험을
만끽하게 될 4일간의 축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7
지금, 내 안의 '예술'을 찾아가는
프린지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축제소개 festival information

2. Way To 프린지
7.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소개
8. 프린지를 찾아라 ‘스무고개’
10.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7 기본가이드
11. 축제일정

주요정보

62.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역사
69. 후원하기
70. 예매정보



축제프로그램 festival program

- 자유참가 프로그램
20.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독립예술제> / 작품정보
- 기획프로그램
49. 프린지로 떠나는 여행
<SNS 개막 퍼포먼스 - Way To Fringe>
 50. 안녕, 스무 번째 프린지
<프린지와 안녕하는 20가지 방법>
 51. 그때 그 프린지를 기억해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아카이브 전시 : 1998~2017>
 52. 경기장 공간탐구 창작 레지던시
<프린지빌리지>
 53. 독립예술집담회 7th ‘독립예술, 앞으로 어떻게 할거니?’
with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54. 소규모 예술수다
<울모스트프린지 : 마이크로포럼>
 55. 당신을 기다리는 특별한 선물
<예술워크숍 : 여행자의 동굴>
프린지 네트워킹 프로그램
<프린지 속 네 가지 색깔>
 56. 인형 엄마 엄정애의 인형극워크숍
<가방 속 이야기>
- 부대프로그램
58. 먹고, 마시고, 놀자 <프린지클럽>
 59. 아티스트와 함께 <관객과의 대화>
올해도 고마워요
<후원의 밤- 한여름 밤의 프린지>
 60. 서울 곳곳에서 미리 만나는 <팝업프린지>
잘했어, 수고했어! <프린지애프터파티>

북회귀선

(北回歸線, Tropic of Cancer, 23° 26' 16"N)

몇 시간 전에 떠난 거기는 지금 한밤중일 텐데, 여기는 아직 해가 천정(天頂, zenith)에 있다. 그리고 보니 이맘 때 쯤이 하지(夏至, summer solstice)다. 결국, 거기에서 도망치듯 떠나 온 여기도 태양을 피하기는 어렵다. 약간 드리워진 건물들의 그림자로부터 위안을 받아야할 처지다. 집에서 꼼꼼히 챙겨온 짐 가방을 분실한 것이 짜증스럽다. 갈아입을 속옷도, 허기를 채워 줄 초콜릿도, 집에 돌아갈 티켓도 짐 가방 안에 모두 들어있다. 터미널 직원에게 연락처를 남겨두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 말로는 기대하지 말란다. 다행히 지도는 주머니에 있다. 덩그러니 서 있는 이정표 앞에서 지도를 펼친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있어야 할 손이 심심해 뒤편도 집어 들었다. 대충 가지치기를 하고 세우니 배꼽 높다. 지팡이.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듯 나무 지팡이를 바닥에 탕!탕!탕! 두드린다. 지금, 여기 한 점. 37°34'9"N, 126°53'51"E, 한 때. 37시 28분. 짜증나고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여행의 시작이다. 왼쪽, 오른쪽. 어디든 좋으니 빨리 결정해 움직여야 한다. 습관적으로 왼발이 앞선다.

저명한 과학잡지 'SCIENCE TODAY'에 따르면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화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불화유황(SF₆))가 지구의 복사열(輻射熱, radiation)을 지나치게 많이 흡수하면서 지구중심의 온도를 5200°C까지 급격히 상승시켰다. 이에 기화(氣化, vaporization)된 바닷물의 수증기는 오존층(ozone layer)의 구멍들 사이로 빠져나가 지구질량의 1/3이 줄었고, 북극성(北極星, Polaris)과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引力, attractive force)은 약해졌다. 그 결과, 지구의 위치는 기존의 가상 중심선이었던 적도(赤道, equator)로부터 30°가량 상승 이동하였다. 여기에 더해 다수의 인구가 평행성(平行星, parallel planet)인 Fringe-2017로 이주한 탓에 지구의 질량이 줄었다는 설도 존재한다. 하여간 위도(緯度, latitude)와 경도(經度, longitude)라는 가상의 선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현재. 모든 나라는 기존의 경도(經度, longitude)에 따른 시차를 적용하지 않고, 각자의 기준시(基準時, base period)를 사용한다. 본초 자오선(本初子午線, prime meridian)을 새롭게 결정하는 G136회의가 214일째 열리고는 있지만, 세계의 기준이 되고 싶은 저마다의 욕망이 뒤엉켜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 나라는 자신들의 고유한 시간, 즉, 기준시(基準時, base

period)를 갖게 되었고 누구라도 자신의 시간을 주장할 수 있는 명목이 생겼다. 과거의 중국처럼. 이제 더 이상 어둠과 태양은 시간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지구의 위치이동에 따른 환경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변화도 찾아왔다. 바닷물이 마르고 떠오른 아틀란티스(Atlantis)의 신화적 사회, 정치제도가 세계에 자리 잡았고, 아마존이 사막화(砂漠化, desertification)되자 일루미나티(Illuminati)가 정글에 숨겨두었던 마야(Maya)의 황금 도시 시우다드 블랑카(Ciudad Blanca)의 실체가 드러났다. 덕분에 황금의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나 황금은 돌맹이가, 돌맹이는 황금이 되었다. 이즈음 버뮤다 삼각지대(Bermuda Triangle)에 건설된 인공의 섬은 Fringe-2017과의 교역의 요지(要衝地)가 되었다.

바다, 파라다이스 (Paradise)

가로로 나열된 회색 기둥들을 지나니 눈이 시리다. 세로로 선 회색의 바다에 반사된 태양빛이 눈을 어지럽혀 졸음을 쫓아낸다. 세로로 닦이는 파도는 빛의 블라인드. CLUB Waikiki, Santa Barbara CAFE, Miami RECORDS, MOTEL Okinawa, Sicilia PIZZA, SUNSET Boracay, TANGO Punta del Este, SUSHI Rio De Janeiro, BAR Havana. 문 닫힌 가게의 빈 간판들이 세계를 향해 있는 이곳은 파라다이스! 지금, 여기 한 점. 37°34'4"N, 126°53'55E, 한 때. 41시 69분. 지지 않는 태양이 형광 암체공이 튀듯 수평선에서 리드미컬하게 다시 튀어 오른다. 회색의 바다습기에 온몸이 젖는다. 스모그에 그늘려 따가운 팔뚝과 옷에 베인 땀 냄새를 진정시키려 언덕의 그림자에 숨는다. 태양이 고도를 높일수록 볼래지수는 높아진다. 짜증스러운 마음에 손에 쥐어진 애먼 지팡이를 땅에 탕!탕!탕! 내리친다.

태양, 상그릴라 (SHANGRI-LA)

회색의 바다를 등지니 남쪽으로 기운 언덕의 모서리가 시원하다. 삼각 모서리로 둘러싸인 분지(盆地, Basin)의 매점 상그릴라(SHANGRI-LA) 앞에서 유명 아웃도어를 입은 열 너댓의 무리가 보인다. North Face, Sherpa, K2, Black yak, Yeti, Machapuchare. 그리고 익숙한 한국말. 해가 뜨지 않는 한국을 떠 나온 무리다. 지지 않는 태양을 보러 온 모양이다. 오랜 시간 태양을 보지 못하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비타민D가 부족해 뼈가 약하다. 아마도 태양을 보기위해 저 언덕의 모서리를 오르는 일은 그들에게 굉장한 끈기와 용기가 있어야 하는 모험일 것이다. 물론 비용도 꽤 비싸다. 가이드를 자처한 매점의 주인은 깃발을 들고 이리저리 흔들며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하지만 다들 저 언덕 너머, 지지 않는 태양에 가까워지는 모험에 흥분한 상태라서 삼삼오오(三三五五) 수다를 떨며 좀처럼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 앞을 지나다 눈이 마주친 무리의 한 사람은 잠시 멈춰서더니 본체만체 긴가민가하는 표정으로 떨던 수다를 마저 떠다. 회색 바다에 반사된 태양 빛과 두터운 스모그에 그을린 검은 피부 탓인지 몰라도 같은 나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하다. 낯선 여행지에서 낯익은 언어,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왠지 달갑지 않은 기분이 들어 그 한국인에게서 애써 눈을 피한다. 애써 인사를 묻지 않는다. 모험에 관해 이런저런 안내를 마친 깃발 든 매점주인은 열 너댓의 무리에게 기다란 초록열매를 나눠준다. 매점의 알바생처럼 보이는 이는 시키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거든다. 5-2라고 불리는 초록열매는 긴 모험에 갈증을 해소해주는 유용한 음식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모험의 중간 지점에서는 전설의 하늘상자(SKY BOX)를 어렵곳이 볼 수 있겠다. 하늘상자(SKY BOX)는 13면체로 아무도 그 뚜껑을 열어보지 못한 신비의 상자이다. 분주히 흔들리는 깃발은 남쪽 언덕으로 향한다. 뒤로 한 줄, 길게 늘어선 무리의 그림자가 접이되어 움직인다. 점. 점. 점... 그 점을 뒤로 지팡이의 그림자도 접이 되고. 지금, 여기 한 점. 37°34'1"N, 126°53'49"E, 한 때. 52시 71분. 매점 상그릴라(SHANGRI-LA)에 남겨진 독립적인 알바생에게서 기다란 초록열매 5-2를 하나 건네받았다. 집을 떠나온 지 얼마가 지났을까. 이제 비몽사몽(非夢似夢)간에 상그릴라(SHANGRI-LA)앞의 평상에 잠시 앉아 쉬어 본다.

저명한 과학잡지 'SCIENCE TODAY'에 따르면 지구의 자전축(自轉軸, axis of rotation)이 약 5° 더 기울어 약 28.5°가량 되었다. 질량이 줄어 기존의 가상 중심선인 적도(赤道, equator)로부터 30°가량 상승 이동한 지구는 더욱 기울어진 자전축(自轉軸, axis of rotation)과 북극성(北極星, Polaris)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약화로 불규칙한 세차운동(歲差運動, precession)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중심을 잃고 죽어가는 팽이의 몸부림과도 같았다. 불규칙해진 자전주기(自轉周期, rotation period)는 지구의 공전궤도를 비틀어지게 하였으며, 간빙기(間氷期, Interglacial stage)와 빙하기(氷河期, glacial stage)의 주기는 매우 빨라졌고, 남극과 북극의 기후는 더욱 극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남극 펄권과 북극곰 간의 공간 이류현상(空間移流, space advection)을 발생 시켰다. 개체수가 많은 펄권이 북극으로 이동하고, 개체수가 적은 북극곰이 남극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 28.5° 기울어 있는 자전축(自轉軸, axis of rotation)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점점 더 기울어 가고 있다. 세계는 점점 더 비틀어져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낮과 밤, 24시간, 365일, 12달과 같은 익숙한 삶의 주기를 벗어나는 일은 현

인류의 속제가 되지 오라다.

사막, 오아시스
(Oasis)

5-2라는 기다란 초록열매 덕분에 갈증이 해소되고 다리에 부기가 빠지니 이제 좀 힘이 난다. 매점 상그릴라(SHANGRI-LA)의 평상을 뒤로하고 손에 꼭 쥐어진 지팡이에 지지해서 몸을 일으킨다. 분지(盆地, Basin)를 에워싼 언덕을 빠져나오니 언덕의 모서리로부터 날아와 앉은 모래가 금빛으로 반짝인다. 바람결이 모래를 격자로 수놓는다. 사각의 모래밭. 잠시 사각의 금빛 모래를 밟아보고 싶어 신발을 벗었다. 너무 뜨겁다. 발자국에 흐트러진 격자의 경계가 바람결에 다시 반듯이 놓인다. 금빛 격자가 헝클어지지 않게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까치발로 절도 있게 걷는다. 왼발, 탕! 오른발, 탕! 갱쟁이로 마구 뛰어도 본다. 잔뜩 신이 난 발놀림에 몸속 5-2의 수분은 다 증발해 버린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나를 찌러보고 있다. 미안한 척 고개를 숙이고 암전히 걷기도 하고, 지팡이로 태양의 옆구리를 찌러도 봤지만, 태양의 마음은 쉬이 풀리지 않는다. 그런 태양을 고깝게 찌러본다. 태양을 찌러보느라 눈에 남은 흑색점이 점점 하얗게 반짝인다. 격자의 모래에 스며드는 은빛 오아시스(Oasis). 태양에 검게 그을린 뜨거운 물 한 잔이 메마른 몸에 퍼진다. 지금, 여기 한 점. 37°34'6"N, 126°53'46"E, 한 때. 62시 48분. 일식(日蝕, solar eclipse)처럼 흑점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은빛의 잔상들. 그 위에 노오란색 토끼 한 마리가 앉아서 말을 건다.

I am calling you
Can`t you hear me?
I am calling you

왼발 갱쟁이 한발에 지팡이 탕! 폴짝. 오른발 갱쟁이 한발에 지팡이 탕! 폴짝. 노오란색 토끼는 약 올리듯 거리를 좁혀주지 않는다. 오기가 생긴다. 갱쟁이 두발에 지팡이 탕!탕! 폴짝폴짝. 태양은 아직도 빠져서 나를 찌러보고 있다. 뜨거운 태양에 그을린 검은 물 한 잔이 온몸에 퍼진다. 은빛의 흑점이 동공 속으로 진입한다.

어둠, 토끼굴
(Rabbit hole)

은빛 흑점의 한가운데, 작아진 동공 속 어둠이다. 드디어 해가 진 건가? 뒤로는 하얀 구멍이, 앞으로는 노오란 토끼를 삼켜버린 검은 구멍이 있다. 하얀 구멍(White hole)과 검은 구멍(Black hole)의 사이. 이곳은 웜홀(Wormhole). 지금, 여기 한 점. 37°34'7"N, 126°53'47"E, 한 때. 68시 56분. 앞으로 나아갈지 뒤로 돌아갈지 결정해야 한다. 토끼굴(Rabbit

hole)이 삼킨 발자국 소리와 지팡이 쿵!쿵!쿵! 소리가 통로에 울린다.
 태양으로 타들어 가던 온몸의 털이 축축하게 얼어버린다. 긴장의 걸음이
 다다른 지면에서는 은빛 흑점들이 하루살이처럼 뒤엎켜 날아다니다 지팡이
 쿵! 소리에 재빨리 평행(平行)하게 도열하고, 하루살이의 길을 걷는다.
 쿵!쿵!쿵! 등 뒤에 하얀 구멍은 점점 작아져 간다. 태양의 무덤.

“네, 금방 가지러갈게요”

잃어버린 짐 가방을 찾았다. 시시콜콜한 이유야 어찌 되었든 짐 가방을
 찾았으니 다행이다. 지친 마음에 걸음을 재촉한다. 어서 빨리 짐 가방을 찾아
 땀에 찌든 옷을 갈아입고, 달달한 초콜릿 하나 먹으면 여한이 없겠다. 뒤로는
 하얀 구멍의 잔상이 아직 남아 있지만,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검은 구멍을
 응시하며 걸어간다. 검은 구멍이 노랗게 변한다. 파랗게 변한다. 초록색으로
 변하더니 금세 검붉게 변한다. 또다시 어두워진다. 닫힌 어둠의 문을 열고
 나선다. 태양은 오간 데 없고, 하늘엔 희미하게 남은 북극성과 이름 모를
 별들이 어스름하다. 파랑새 한 쌍이 달빛을 쫓아 푸드득 날아간다. 지금, 여기
 한 점. 37°34'9"N, 126°53'51"E, 한 때. 72시 00분. 프린지. 끝.

태양의 무덤을 지나
 달이 떠오르는 어둠의 72시
 스무 개의 답을 얻는 자
 거대한 힘을 얻을 것이니
 구하라 엑스칼리버

금을 구하는 자 돌맹이를 얻을 것어요
 돌맹이를 구하는 자 금을 얻을 것이다.

크게 외쳐라
 열려라 프린지
 크게 휘둘러라
 엑스칼리버

열려라 프린지
 열려라 프린지
 구하라 돌맹이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소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독립예술축제,

1998년 대학로에서 펼쳐진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당시 20대의 젊은 예술가들이 권위적이고 틀에 얽매인 답답한 예술계에서 탈피하고자 함께 만든 축제 ‘독립예술제’를 그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순수예술, 상업적인 대중문화로 양분화 되어 있는 문화예술계 속에서 우리들의 다른 목소리, 우리들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의 작품을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작한 축제입니다. 이후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한 독립예술제는 2002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로 축제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예술 시도의 장

연극, 무용, 음악, 퍼포먼스, 미술,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예술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보통의 예술축제와 달리 참가 작품이나 예술가에 대한 심사, 선정의 단계가 없으며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공간을 실험하고 장르와 형식을 넘나드는,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 색다른 도전, 자유로운 작품 발표가 가능한 축제입니다.

독립예술계의 베이스캠프,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을 주관하는 서울프린지네트워크에서는 젊은 예술가의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문화행사, 예술교육 및 공간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독립예술계에 투자하여 예술가와 작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입니다. 서울프린지네트워크는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밤’과 연계하여 작품 연구 및 비평을 진행하며 예술 환경을 위한 담론 형성에 기여합니다.

프린지를 찾아라

<프린지를 찾아라>에
참여하고 굿즈 득템하세요!

지도에 표시된
스탬프를 찍으면,

스탬프 10개 :

클럽음료쿠폰 1개
+ 프린지스티커 5종

스탬프 20개 :

클럽음료쿠폰 2개
+ 프린지스티커 5종
+ 프린지벤티지 1종
+ 프린지보틀

스무고개 문제를 모두 풀면,

클럽음료쿠폰 2개
+ 프린지스티커 5종
+ 프린지벤티지 2종
+ 프린지에코백

스탬프 20개와 스무고개

문제를 모두 완성하면,

클럽푸드쿠폰 1개
+ 클럽음료쿠폰 2개
+ 프린지스티커 5종
+ 프린지벤티지 3종
+ 프린지보틀
+ 프린지에코백

*상품은 아이템샵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1.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1998년, 대학로 일원에서 _____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2.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프린지페스티벌은 예술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라는 축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예술적 심사나 작품에 대한 인위적인 선별 과정 없는 _____원칙은 20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3. 2000년 문화 예술의 다양한 교류와 네트워크를 위해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처음으로 다른 축제와 교류했다. 이 축제는 무엇일까? _____
4. 1998년, 대학로에서 시작한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1999년에는 예술의전당, 2000년에 다시 대학로에서 열렸다. 2001년에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열린 장소는 어디일까? _____
5.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시작한 이래로 많은 후원회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2001년 축제에서 사용한 후원회의 명칭은 무엇일까? 클럽 _____
6. 독립예술제로 시작 된 지금의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_____년에 축제의 모델로 삼았던 'Fringe Festival'로 변경함으로써 축제의 목표를 명칭으로 구체화 하였다.
7. 아주열정(亞洲熱情)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했던, 2003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포스터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몇 마리일까? _____
8. 올해 20회를 맞은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열린다. 그렇다면 2003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몇 일간 열렸을까?
9. "프린지가.정착한.지역엔.더.이상.풀과.나무가.자라지.않는 다..오직. _____과 _____만.자란다." _레이지본의 준다이

10. 다음의 보기 중

짜이 맞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내부공사 ·

암종모색 ·

이구동성 ·

고성방가 ·

중구난방 ·

· 무대예술제

· 미술전시축제

· 거리예술제

· 아시아독립영화제

· 음악축제

11. 2006년 5톤 트럭에 작은 거리 공연을 싣고, 봄비는 시내와 도심으로 공연을 배달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이름은 무엇일까? _____

12. 2007년에 시작한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공연에 적합한 공간을 선택하는 프로그램 b.y.o.v. 어떤 문장의 약자일까? _____

13. 2008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포스터에 등장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 _____

14. 2011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로고송 제목은 무엇일까? _____

15.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2는 자유참가작을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으로
분류하여 친근하고 감성적으로 소개했다.

16. 2015년 이후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린 첫 행사로 매년 봄/가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명칭은 무엇일까? _____

17.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축제의 거점을 옮긴 이후 공간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도하기 위해 기획된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_____ 이다.

18.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자랑하는 ‘가장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원활동가’를 뜻하는 명칭은 무엇일까? _____

19.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7을 만드는 사람은 _____ 명, 참여 예술가는 _____ 팀이다.

20. 20회의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예술가 중 가장 많이 참여한 예술가는
하애정(풍물창작단 소용)으로 8회 참여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
참여한 예술가는 총 몇 명(팀)일까? _____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7 기본가이드



평일 오후 3시, 주말 2시에 입장이 가능하며, 평일 오후 4시, 주말 3시에 공연이 시작됩니다.



비상약품은 종합안내소, 프린지클럽, 축제운영본부에 비치되어있습니다.



프린지에 물어보세요. 현장 곳곳에 스태프, 인디스트가 항상 대기중입니다.



입장 시 반드시 팔찌를 착용해주세요.



경기장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은 경기장 밖 지정된 구역을 이용해주세요.



사전 예약이 필요한 공연이 있습니다. 예약테이블에 현장예약 후 관람해주세요.



지도를 참고하여 관람 동선을 체크해주세요. (공연시간 10분 전까지 공연장소에 도착해주세요.)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기 위해 아래 물품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취사용품, 화염성 물품, 소형탐승기구 등)



프린지클럽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음료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공연 중에는 허가되지 않은 비디오, 사진 촬영은 금지됩니다.



우천시에도 공연은 계속됩니다. (공연이 중단될 시,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움직여주세요.)

* 공연 관람 전 유의해주세요!

관객 수 제한이 있는 공연의 경우
예약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사전예약과 현장예약 모두
비지정석 선착순 입장입니다.

<온라인 사전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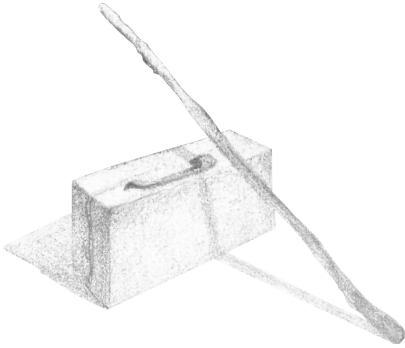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
(www.seoulfringefestival.net)에서
티켓 구매 후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 참고

<현장 예약>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 예약이 가능합니다.

관람을 원하는 공연장 앞에 위치한
'예약테이블'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7.19 수요일

시간	아티스트	장소	사전예약
16:00	매머드머메이드(30)	■ C-8	✓
	시나브로(40)	■ F	✓
	봄의주막(40)	■ C-13	✓
17:00	자유인(20)	■ BC	
	프로젝트XXY(20)	□ CD	
	극단 페로자(60)	■ C-15	✓
17:30	개우무영아릿사라(15)	■ C	
18:00	사단법인 학교밖청소년학교(40)	■ D	✓
	팝카펠라 원달러(40)	□ CDJ	✓
18:30	사회적협동조합 살판 X T&S Project(40)	■ CD-L	
19:00	주춤(20)	■ D	
	프로젝트XXY(20)	□ CD	

상시전시

박세진,천윤기

□M

김현기

□B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

■A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아카이브 전시:1998~2017

■BCDE

-

전시 해설 프로그램

7/19(수), 7/20(목)

17:30

7/21(금), 7/22(토)

17:30, 19:30

시간	아티스트	장소	사전예약
19:00	지성은(120)	■C-2	✓
	프로젝트 극단 우아(50)	■C-5	✓
19:30	20도씨(45)	■C-8	✓
	봄의주막(40)	■C-13	✓
20:00	깨우무영아릿사라(15)	■C	
	한HAN (20)	■CD-M	✓
20:30	주변인들(45)	■A	
	극단 52hz(40)	■AB	
21:00	사단법인 학교밖청소년학교(40)	■D	✓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김지우(10)	■CD	
21:30	살롱시소(40)	□CDJ	✓
	위즈덤프로젝트(50)	■C-4	✓
21:30	창작집단3355(30)	■C-7	✓
	미아(20)	■C-9	✓
21:30	남만씨어터(50)	■C-11	✓
	공연집단 우주콜라주(60)	■CD-K	✓
21:30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양상블(30)	■프린지클럽	
	미아(20)	■C-9	✓
21:30	창작집단 위선자(50)	■E	
	극단 페로자(60)	■C-15	✓
21:30	컷털매직유랑단(15)	■H-1	
	매머드머메이드(30)	■D	✓
21:30	프로젝트XXY(20)	□CD	
	미아(20)	■C-9	✓
21:30	팝카펠라 원달러(40)	■프린지클럽	
	시나브로(40)	■F	✓
21:30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양상블(30)	■CD	
	미아(20)	■C-9	✓

7.20 목요일

시간	아티스트	장소	사전예약
16:00	극단 송곳(60)	■F-C	
	시나브로(40)	■F	✓
	매머드머메이드(30)	□CDJ	✓
	난파선(60)	■B	
	봄의주막(40)	■C-13	✓
17:00	프로젝트 XXY(20)	□CD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이경민(20)	■C-1	✓
17:30	개우무영아릿사라(15)	■C	
18:00	프로젝트 문득(45)	■H-2	✓
	사단법인 학교밖청소년학교(40)	■D	✓
	팝카펠라 원달러(40)	□CDJ	✓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장주은(20)	■C-1	✓
18:30	사회적협동조합 살판 X T&S Project(40)	■CD-L	
19:00	주춤(20)	■프린지클럽	
	프로젝트XXY(20)	□CD	
	지성은(120)	■C-2	✓
	프로젝트 극단 우아(50)	■C-5	✓
	20도씨(45)	■C-8	✓
	극단 송곳(60)	■F-C	
19:30	개우무영아릿사라(15)	■C	
	Crew. 좇아가다(40)	■D	✓
	한(HAN) (20)	■CD-M	✓
20:00	주변인들(45)	■A	
	극단52hz(40)	■AB	
	난파선(60)	■B	
	살롱시소(40)	□CDJ	✓
	위즈덤프로젝트(50)	■C-4	✓

상시전시

박세진,천윤기

□M

김현기

□B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

■A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아카이브 전시:1998~2017

■BCDE

-

전시 해설 프로그램

7/19(수), 7/20(목)

17:30

7/21(금), 7/22(토)

17:30, 19:30

시간	아티스트	장소	사전예약
20:00	창작집단3355(30)	■C-7	✓
	봄의주막(40)	■C-13	✓
	미아(20)	■C-9	✓
	공연집단 우주콜라주(60)	■CD-K	✓
20:30	사단법인 학교밖청소년학교(40)	■D	✓
	창작집단 위선자(50)	■E	
21:00	미아(20)	■C-9	✓
	프로젝트XXY(20)	□CD	
7/19(수), 7/20(목) 17:30	매머드머메이드(30)	■C-5	✓
	극단 현(40)	■C-11	✓
	극단 페로자(60)	■C-15	✓
7/21(금), 7/22(토) 17:30, 19:30	미아(20)	■C-9	✓
	프린지 속 네가지 색깔(40)	■프린지클럽	
	시나브로(40)	■F	✓
21:30	팝카펠라 원달러(40)	■CD-L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양상블(30)	■CD	
	미아(20)	■C-9	✓

7.21 금요일

시간	아티스트	장소	사전예약
16:00	극단 송곳(60)	■F-C	
	창작집단 LAS(50)	■FA	
	프로젝트 문득(45)	■H-2	✓
	시나브로(40)	■F	✓
	주춤(20)	■CD	
	난파선(60)	■B	
	민필(60)	□CDJ	✓
	매머드머메이드(30)	■C-8	✓
16:30	일요일의 사람들(30)	■C-11	✓
	마제스틱씨어터랩(60)	■F	
17:00	시파프로젝트(25)	■AB	
	자유인(20)	■BC	
	프로젝트XXY(20)	□CD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장세훈(10)	■C-1	✓
	극단 페로자(60)	■C-15	✓
	우주마인드프로젝트(60)	■EF	
17:30	극단 시지프(15)	■GH	
	깨우무엇아릿사라(15)	■C	
18:00	창작집단 LAS(50)	■FA	
	프로젝트 문득(45)	■H-2	✓
	사단법인 학교밖청소년학교(40)	■D	✓
	팝카펠라 원달러(40)	□CDJ	✓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조요인(10)	■C-1	✓
	일요일의 사람들(30)	■C-11	✓
18:30	사회적협동조합 살판 X T&S Project(40)	■CD-L	
19:00	극단 송곳(60)	■F-C	
	프로젝트 락교(40)	■F	
	시파프로젝트(25)	■AB	
	후즈아트(100)	■A	
	지성은(120)	■C-2	✓
	다도 스튜디오(20)	■C-3	✓
	프로젝트 극단 우아(50)	■C-5	✓
	20도씨(45)	■C-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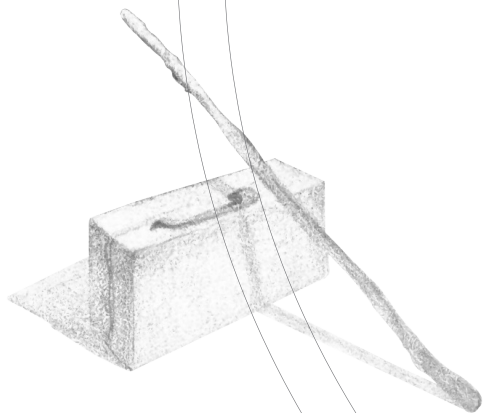
상시전시	시간	아티스트	장소	사전예약
박세진,천윤기 □M	19:30	민필(30)	■프린지클럽	
		극단 시지프(15)	■GH	
김현기 □B		깨우무영아릿사라(15)	■C	
		Crew.쫓아가다(40)	■D	✓
		창작모듬 잡담(40)	□J	✓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 ■A		일요일의 사람들(30)	■C-11	✓
		한HAN(20)	■CD-M	✓
창작집단 극과 이것 ■F-BC	20:00	주변인들(45)	■A	
		극단 52hz(40)	■AB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아카이브 전시:1998~2017 ■BCDE - 전시 해설 프로그램 7/19(수), 7/20(목) 17:30 7/21(금), 7/22(토) 17:30, 19:30		사단법인 학교밖청소년학교(40)	■D	✓
		미아(20)	■C-9	✓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조요인(10)	■CD	
		난파선(60)	■B	
		살롱시소(40)	□CDJ	✓
		위즈덤프로젝트(50)	■C-4	✓
		창작집단3355(30)	■C-7	✓
		봄의주막(40)	■C-13	✓
		공연집단 우주콜라주(60)	■CD-K	✓
		20:30	마트(30)	■프린지클럽
매머드머메이드(30)	■C		✓	
창작집단 위선자(50)	■E			
미아(20)	■C-9		✓	
21:00	콧털매직유랑단(15)	■H-1		
	프로젝트XXY(20)	□CD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조요인(10)	■CD		
	라이크어패밀리(50)	■C-11	✓	
	극단 페로자(60)	■C-15	✓	
21:20	미아(20)	■C-9	✓	
	풍물창작단 소용(70)	■프린지클럽		
	리프리컴퍼니(40)	■A		
	시나브로(40)	■F	✓	
21:30	팝카펠라 원달러(40)	■CD-L		
	미아(20)	■C-9	✓	

7.22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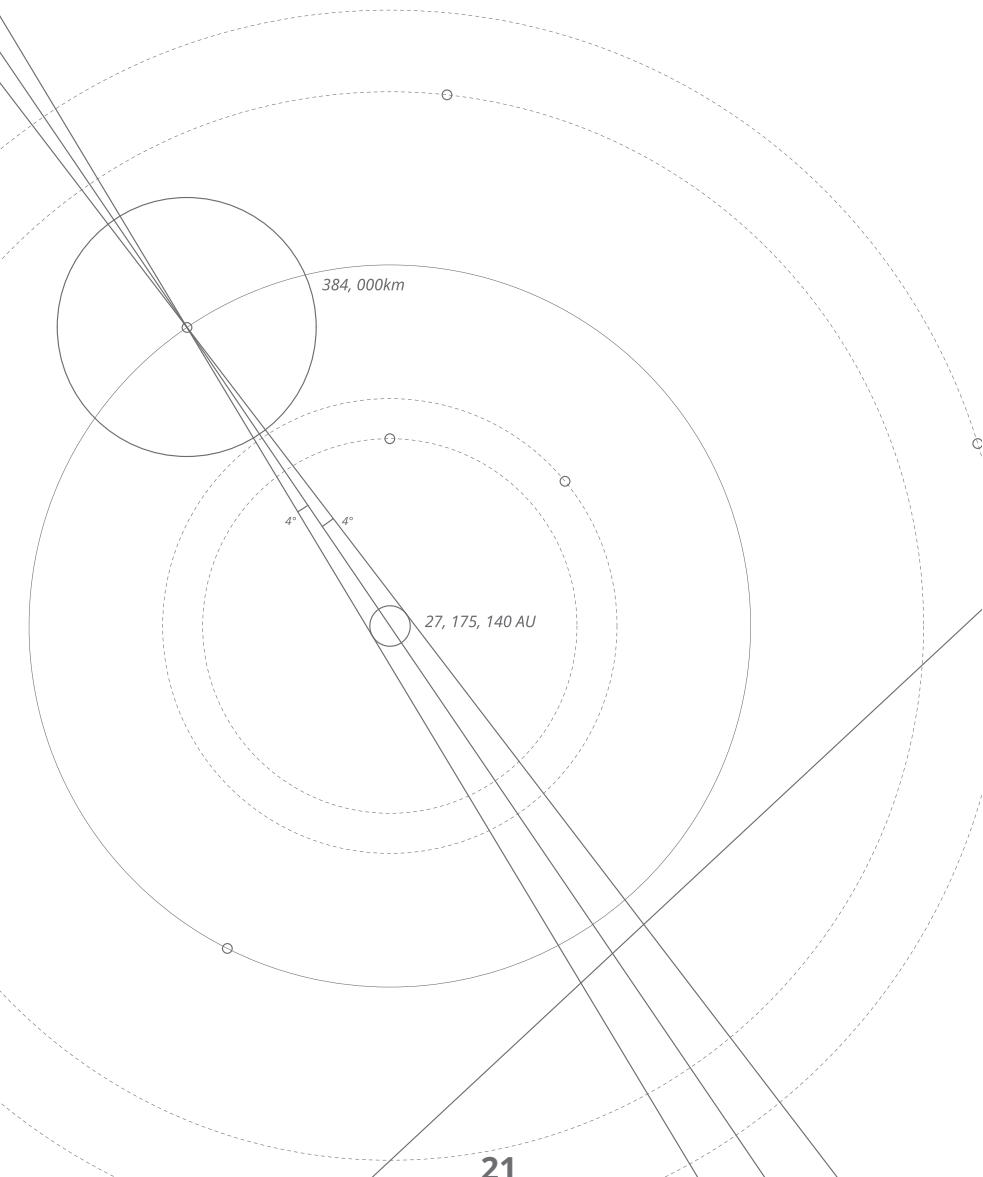
시간	아티스트	장소	사전예약
15:00	난파선(60)	■B	
	매머드머메이드(30)	■F	✓
	Crew.쫓아가다(40)	■D	✓
	20도씨(45)	■C-8	✓
	사회적협동조합 살판 X T&S Project(40)	■CD-L	
15:30	봄의주막(40)	■C-13	✓
16:00	창작집단 LAS(50)	■FA	
	프로젝트 문득(45)	■H-2	✓
	시나브로(40)	■F	✓
	주춤(20)	■CD	
	민필(60)	□CDJ	✓
16:30	일요일의 사람들(30)	■C-11	✓
	극단 페로자(60)	■C-15	✓
17:00	마제스틱씨어터랩(60)	■F	
	시파프로젝트(25)	■AB	
	자유인(20)	■BC	
	프로젝트XXY(20)	□CD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정의영(10)	■C-1	✓
	우주마인드프로젝트(60)	■EF	
17:30	극단 시지프(15)	■GH	
	깨우무영아릿사라(15)	■C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신윤아(10)	■C-1	✓
18:00	창작집단 LAS(50)	■FA	
	극단 타쇼(30)	■A	
	팜카펠라 원달러(40)	□CDJ	✓
	일요일의 사람들(30)	■C-11	✓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정의영(10)	■C-1	✓
18:30	살롱시소(40)	■CD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신윤아(10)	■C-1	✓
	프로젝트 문득(45)	■H-2	✓
19:00	언앤딩(35)	■F	
	프로젝트 락교(40)	■F	
	시파프로젝트(25)	■AB	
	난파선(60)	■B	
	후즈아트(100)	■A	

상시전시	시간	아티스트	장소	사전예약
박세진,천윤기 □M	19:00	지성은(120)	■C-2	✓
		다도 스튜디오(20)	■C-3	✓
		프로젝트 극단 우아(50)	■C-5	✓
김현기 □B	19:00	20도씨(45)	■C-8	✓
		클레프아트(60)	■C-15	✓
		개우무영아릿사라(15)	■C	
사단법인 학교밖청소년학교 ■D	19:30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전수빈(10)	■CD	
		극단 시지프(15)	■GH	
		Crew.쫓아가다(40)	■D	✓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 ■A	19:30	창작모듬잡담(40)	□J	✓
		일요일의 사람들(30)	■C-11	✓
		한HAN(20)	■CD-M	✓
창작집단 극과 이것 ■F-BC	20:00	주변인들(45)	■A	
		극단 52hz(40)	■AB	
		살롱시소(40)	□CDJ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아카이브 전시:1998~2017 ■BCDE -	20:00	주춤(20)	□G	
		위즈덤프로젝트(50)	■C-4	✓
		창작집단3355(30)	■C-7	✓
전시 해설 프로그램 7/19(수), 7/20(목) 17:30	20:00	봄의주막(40)	■C-13	✓
		미아(20)	■C-9	✓
		공연집단 우주콜라주(60)	■CD-K	✓
7/21(금), 7/22(토) 17:30, 19:30	20:30	창작집단 위선자(50)	■E	
		미아(20)	■C-9	✓
		매머드머메이드(30)	■CD	✓
마트(30)	21:00	■프린지클럽		
		극단 타소(30)	■프린지클럽	
		미아(20)	■C-9	✓
프로젝트XXY(20)	21:00	□CD		
		라이크어패밀리(50)	■C-11	✓
		시나브로(40)	■F	✓
페막 22:00 프린지와 안녕하는 20가지 방법(20) ■프린지클럽	21:30	유어예가야금프로젝트_전수빈(10)	■CD	
		마트(30)	■D	✓
		미아(20)	■C-9	✓



자유참가프로그램 :

독립예술제





연극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7/21(금) 19:00 |
 7/22(토) 15:00, 19:00 | ■ C-8 | 45분

제작진 한이정 윤숙현 박가영 유리나
 정다운 권태욱 박성민 이강준
출연진 전혜정 공혜리 이한나

어딘가에 표류중인 여자들. 꿈은 남아있고
 물음은 계속 됩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도, 우리에게도 용기가 생기길
 꿈꿉니다. 그리고 이런 찜질함이라도 공감해줄
 누군가들과 다이빙대에서 덜덜 떨면서 만나는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깨어나 움직일 수 있는, 또 언젠간
 뜨거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온도,
 20도씨를 항상 갈망하는 자유표현집단
 <20도씨>입니다.



연극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20(목)-7/21(금) 19:30 |
 7/22(토) 15:00, 19:30 | ■ D | 40분

제작진 최선은
출연진 유홍재 최선은 박진현 박승현

연극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헤르만헤세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나르치스와 자유분방한
 골드문트가 만나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는
 우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개개인의 다름과 우리의 다름, 그 외에 많은
 다름을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다름으로
 인하여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다름을 수용했을
 때 어떤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지 함께
 생각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Crew.쫓아가다>는 연극을 통해 목표,
 이상, 행복을 추구합니다. 쫓아가다의 공연을
 관람해주시는 관객 분들도 함께 생각을
 더듬어가기를 늘 기대합니다.



연극 | 만 18세 이상 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7/22(토) 20:00 | ■CD-K | 60분

제작진 유용석 유민석

출연진 서영한 서은주

이 공연은 시와 산문을 비롯한 여러 텍스트, B급 이미지, 신화적 상상력 등을 엮은 라이브 콜라주로서, ‘절망감과 회의감으로 가득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진지하고도 사소한 탐구이다. 좁고 긴, 물기어린 공간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 여러 시간과 공간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일그러지고, 욕하고, 취하고, 도망치고, 숨고, 꿈꾸고, 기억하고, 눈물 흘린다.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강박적으로. 우리는, 마치 변기 속에서 꼬리를 툰고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뱀처럼, 여기에 있다.

<공연집단 우주콜라주>는 세상의 강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한 예술 장르간의 충돌과 결합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표현과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 방위 공연예술단체를 지향합니다. ‘지속 가능한 예술적 실험과 예술가로서의 건전한 아마추어리즘 회복’을 모토로 젊은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부활시키는 동시에, 장르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예술아지트를 구축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음악극 | 전체관람가

7/20(목)-7/21(금) 16:00, 19:00 |
■F-C | 60분

제작진 황나영 장종엽 이양혁 박승우

심재욱 전다은 이정연

출연진 김안젤라 조강혁 한창우

“러브앤피스”는 세상을 이끌어나가기도 떠밀러가기도 불안한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의 청춘, 우리는 늘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직 젊기에” 반항하고 놀아봅니다. 그 시대를 살아본 우리 부모님세대에게는 공감과 즐거움을,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간접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극단 송곳>은 제 몸을 부수면서도 앞을 뚫고 나오는 ‘송곳’처럼 세상과 사람들의 막힌 가슴을 해원하고 정직하고 용감하게 살고 싶은 젊은 창작집단입니다.



플댄스 창극 | 만 15세 이상 관람가
 7/21(금)-7/22(토) 17:30, 19:30 |
 ■GH | 15분

제작진 유명훈 이나경 박화홍
 박진열 나바루
 출연진 이효애 김다정 신유주

새로운 퍼포먼스를 통해 현대인의 관심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소통의 열망이 담긴 또 하나의 산물입니다. 가야금 병창과 플댄스로 표현되는 우리들의 이야기. 인스타그램 속 세상과 현실의 괴리를 신선한 퍼포먼스로 펼쳐 보입니다.

<극단 시지프>는 2012년 젊은 창작자들이 모여 만든 연극 단체입니다. ‘부조리’란 화두를 중심으로 독창적 스타일의 순수 예술에 몰입하는 한편, 삶의 경계(境界)를 연극이란 장르로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후원. 풀핏코리아



퍼포먼스 | 전체관람가
 7/22(토) 18:00 | ■A
 21:00 | ■프린지클럽 | 30분

제작진 정종석
 출연진 정종석 최경미 김보경 이유진
 방미영 황이삭 유영욱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매력적인 무대표현력과 한시도 눈을 땔 수 없게 하는 관객과의 소통, 더욱 멋진 내일을 만들어 전통과 현대의 맥을 이어가는 문화예술공연의 선두주자 ‘타쇼’의 뜨거운 북소리가 경기장을 울립니다.

심장을 두드리는 뜨거운 북소리!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타악 창작곡과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관객을 사로잡는 <퓨전 타악그룹 타쇼>입니다.



연극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 17:00, 20:30 | 7/20(목) 21:00 |

7/21(금) 17:00, 21:00 | 7/22(토) 16:30 |

■C-15 | 60분

제작진 김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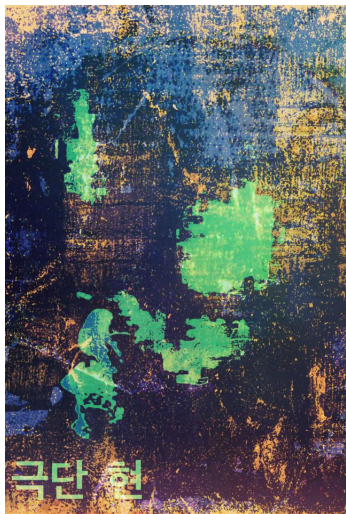
출연진 홍유진 김민경 이소연

현대사회에서 자본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큰 자본 앞에서 개인적 욕망과 도덕적 행위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들과 아들의 부인, 어머니와 그 딸.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관객과 무대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관객에게 자본과 가족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던질 것입니다.

<극단 페로자>는 다양한 장르와 복합적인
예술의 공연화, 창작극의 공연화를 추구하며
신선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입니다.



연극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20(목) 21:00 | ■C-11 | 40분

제작진 현혜숙

출연진 현혜숙

다문화가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애환에 대한 이야기를
복화술로 선보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 하면서도
늘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와 개인,
수많은 개인과 개인간, 자연과의 대립 속에
개인은 놓여있고 그 부딪힘 속에 무수히 많은
결과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결점의 선택이 진정한 자기 자신의
선택인가. <극단 현>은 모든 관계성에서
파생된 것들, 미세함도 놓치지 않고 탐구해갈
것입니다.



연극 | 전체관람가

7/19(수)-7/22(토) 20:00 | ■AB | 40분

제작진 장효정

출연진 김해준 송교빈

때는 미래 어느 도시. 피로하지 않은 자는 곧 죽음. 이 도시에 P로봇과 P로봇이 있다. A로봇, B로봇, C로봇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곳엔 오직 P로봇들만 무수하게 존재한다. P로봇만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피로하기 위해 오로지 계속해서 움직일 뿐이다.

고래52는 52Hz의 높은 주파수로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고래52의 소리는 1989년 처음 감지되어 1992년 이 고래의 이름을 ‘52고래’로 명명했습니다. 이후 20년에 걸쳐 수중청음장치를 이용하여 고래52의 소리를 추적했지만 소리만 관측될 뿐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다 속에서는 여전히 고래52의 노랫소리가 계속해서 관측된다고 합니다. 고래 52가 내는 주파수52Hz. 자신만의 소리로 끊임없이 노래하는 고래52를 모티브로 <극단52Hz>는 자유롭게 우리만의 스타일로 우리만의 소리를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연극집단입니다.



전시 | 전체관람가

7/19(수)-7/22(토) 15:00-22:00 |

□B | 상시전시

제작진 김현기

출연진 김현기

「도시의 마스크」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고,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원래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외부공기의 오염된 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마스크를 도시에게도 주어 오염된 공기를 조금이나마 정화시키면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도시의 각종 부조리와 부정적인 행위들 또한 공기로 생각하여 필터링하고자합니다.

<김현기>

확실적이고 반복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작업들은 이러한 ‘일상’ 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이더라도 ‘나는 그러한 일상의 흐름에서 색다른 요소를 찾아 작업으로 이어나간다.’ 라는 마인드로,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고 예술장르의 벽을 허물고자합니다.



무용 | 전체관람가

7/19(수)-7/22(토) 17:30, 19:30 |

■C | 15분

제작진 Varabut Nutnitchak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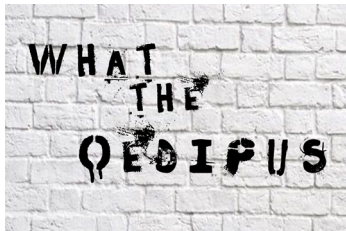
출연진 Kaewmuang Arisara

「스틸(still)」

오늘, 당신은 떠났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즐거웠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신은 떠났습니다. 나는 짧은 시간동안 기도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이 다시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은 떠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깨우무영 아릿사라(Kaewmuang Arisara)>는 태국인으로, 예술 종합 학교에서 마스터 안무를 배우는 무용수입니다.

출라 롱콘 대학교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태국 무용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태국 무용 이외에 현대 무용, 발레, 육체적 인 연극 및 아시아 무용에 관심을 가지고 배웠으며, 지금은 한국 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연극 | 전체관람가

7/20(목)-7/21(금) 16:00, 20:00 |

7/22(토) 15:00, 19:00 | ■B | 60분

제작진 최혜빈

출연진 박한울 강민아 김미소 정지혜
조아영 하태희 김래성

WHAT THE OEDIPUS!

모든 이들은 오이디푸스처럼 진실을 알고자 한다. 과연 내가 알고 믿는 것만이 전부일까? <WHAT THE OEDIPUS>는 ‘삶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을 새롭게 바라본 작품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지점에 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똑바로 바라볼 자인 있는가. 진실의 힘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끝까지 진실을 알기 위해 싸우는 오이디푸스의 모습을 통해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

<난파선>은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움직임을 통해 이미지적인 표현을 주로하며 긴 회극을 짧게 재창조하여 강렬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인 팀입니다.



음악낭독극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 20:00 | ■C-11 | 50분

제작진 백은숙 김민수

출연진 정효정 이혜정 한초아 오정우

<카메라루시다>는 사진의 예술성에 대해 탐구한 프랑스 철학자 롤랑바르트의 에세이 <카메라루시다>를 각색하여 9개의 순수창작곡과 낭독으로 이루어진 공연입니다.

롤랑바르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어머니의 어린시절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발견합니다. 그 중 어머니의 본질, 존재의 정수를 드러낸 단 하나의 사진 <온실사진>을 발견합니다. 절대선의 얼굴로 수줍게 서있는 소녀의 모습은 진실로 자신의 어머니이며 롤랑바르트 자신의 내면과 존재를 뒤흔들 만큼의 강력한 감동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한 롤랑바르트의 사적인 경험을 통해 '감정'으로서 사진을 탐구하고 바라보며 스튜디오/폰크툼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낭만씨어터>는 청년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중심으로 공연을 제작하는 뮤지컬 극단으로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낭만이 있는 공연으로 관객과 호흡하고자 합니다.



퍼포먼스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21(금)-7/22(토) 19:00 | ■C-3 | 20분

출연진 신소영 양승주

「white shadow」

종이. 나를 감싸고 있는 얇고 하얀 종이는 기억 속 공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차가운 듯 따뜻하게 나를 어루만지고, 새하얀 빛은 나만을 위해 감싸고, 나만 들리는 소리는 음악인지 소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적막 속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공간의 내부는 크게 울립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 날카롭고 예민하지만 미약한 소리가, 종이 가르는 공간 안팎으로 흐릅니다. 이 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경계, 그 사이, 그 중심.

<다도 스튜디오>는 오브제, 빛, 보이스, 사운드, 이미지 시각화 등 다양함을 추구하며, 창작자들은 개인의 고유한 질문과 그에 기반을 둔 작가적 탐색이 가능한 공연을 하고자 끊임없는 실험을 합니다. 고유한 예술 언어와 스타일을 통하여 관객과 새로운 소통을 열 수 있는 작가주의적 공연과 작품을 추구합니다.



연극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21(금)-7/22(토) 21:00 | ■C-11 | 50분

제작진 장진 장웅진 박재진 안미령 이성희
박준석 고성재 박사무엘 백소현 김민정
강민구 이소령 유문호 김유하랑 이지현.
고민지 배육자 권미령 심재영 허소정
김서현 허수빈 임도희 김민채 박성호
허예지 조정민 남명렬 이수아 천연정
홍수민 최우형
출연진 이가영 김진영 임신영 이슬림
정서빈 지다현 김희경 김민지 이형준
유민후 조수범 김형록 김제민 박건

「아네모네」는 장진 원작의 ‘아름다운 사인’을
각색한 작품으로 자살로 죽음을 맞이한
여섯 여자의 이야기를 코믹, 스릴, 감동으로
재구성한 연극입니다. OECD국가 자살률
1위인 우리사회에서 이들의 죽음은 자살인가?
사회적 타살인가? 이들은 과연 어떻게 배에
될 수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작품으로, 무대장치 없이 배우 여섯 명과 의자
여섯으로만 연극이 진행됩니다. 여섯 명의
배우가 빈 무대에서 대사와 움직임만으로
등장인물들의 과거 상황과 현재의 심정과
삶에 대한 연민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라이크패밀리>는 세종대학교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연극학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댄스 | 만 13세 이상 관람가
7/21(금) 21:20 | ■A | 40분

제작진 김다혜 남혜지 김서희 정다운 장주희
출연진 박민영

「빛」은 여름이면 쏟아져 나오는 공포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표현해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싶은 것에서 시작된
작품으로, 빛에 대해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드라클라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공연이 진행됩니다. 스토리의 진행과 사건
발생은 빛(조명)과 댄서들의 움직임을 주로
진행됩니다.

<리프리 컴퍼니>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로, 공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공연기획, 제작, 연출을
직접하고 있는 팀입니다. 학교의 각종 행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공연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활동도 이어나가는 단체입니다.



다원예술음악극 | 전체관람가
7/21(금)-7/22(토) 17:00 | ■F | 60분

제작진 윤수향 이지영 김영호
출연진 민아람 이지영

디지털 문명과 기계화, 4차혁명 등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그 속에 부작용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 SNS, 텍스트로 소통을 하며 점차 온기있는 소통보다는 손가락으로 소통하며 오는 인간관계의 문제, 소통의 문제 등을 함께 생각해보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Immersive theatre (관객체험형 공연), SITE- SPECIFIC theatre (장소특정형 공연)으로 제작되었으며 릴렉스 테라피(사운드, 향기테라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제스틱 씨어터 랩>은 연극을 기반으로 한 창작음악극, 다원예술 퍼포먼스, Site-specific theatre, Immersive Theatre, Applied Theatre 제작을 하는 단체입니다.



번버벌 퍼포먼스(마술) | 전체관람가
7/21(금)-7/22(토) 20:30 |
■프린지클럽 | 30분
7/22(토) 21:30 | ■D | 30분 |
예약제 공연

제작진 마용환
출연진 마용환

「어디 아파??」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어디 아파? 무슨 문제 있어?”
대답을 할 필요도 없이 보이는 대로다.
나도 사람들에게 묻는다.
“아무데도 안 아파? 아무 문제없어?”
무덤까지 가는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 감정의 치유를 맞보도록 하자.

퍼포머이자 소디렉터인
마용환<MArt(마트)>는 동아인재대학
마술과를 전공하였으며, 2009년
세계마술협회(IBM)과 미국마술협회(SAM)에
등록하여 마술계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공연
문화에 자발적 활동을 하며, 대한민국에
조금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거리공연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거리공연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그
문화를 알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인극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 16:00 | ■C-8

7/19(수) 21:00 | ■D

7/20(목) 16:00 | □CDJ

7/20(목) 21:00 | ■C-5

7/21(금) 16:00 | ■C-8

7/21(금) 20:30 | ■C

7/22(토) 15:00 | ■F

7/22(토) 20:30 | ■CD | 30분

제작진 김은한

출연진 김은한

신작 '목동의 카멜레온'을 집필 중이라고 우기는 작가 앞에 박사들이 나타나 연극에 대해 우깁니다. 라고 이오네스코는 말하고 있다고 제가 우깁니다. 인디 예술인이라 우기며, 적을 두지 않고, 나 좋아고 하는 일을 관객에게 보이려는 어리석음.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배움이 없고, 조예와 기예도 없는 사기꾼이며 작업은 날림, 건성과 게으름을 유희라 우깁니다. 그런데도 연극을 좋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만들며, 표현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이게 뭔가요?

<매머드머메이드>는 매머드(소멸해 잊힌 것)와 머메이드(환상에 있는 것)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것, 이래도 되나 싶은 것, 형편없는 것에 집중하는 취미 극단입니다.



전시형공연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7/22(토) 20:00, 20:30,

21:00, 21:30 | ■C-9 | 20분

제작진 백소정 정은선 이성직

출연진 백소정 정은선 이성직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1년 남짓한 서울살이를 모아 보여드립니다. 그 시간들은 5가지로 나뉘어 전시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지 우리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우리가 사는 동네 <미아>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아>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내딛는 예술,인(忍) 단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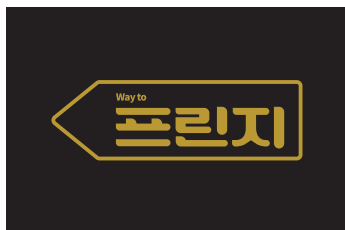


음악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21(금)-7/22(토) 16:00 | □CDJ | 60분
7/21(금) 19:30 | ■프린지클럽 | 30분

출연진 박용필 김민수

우리는 노래하고, 당신은 쉽니다. 잠들기 좋은 어둠 속에서 소박한 노래들은 쉼을 위한 배경이 되고, 잠 든 관객의 숨소리는 노래의 일부가 됩니다. 프린지라는 여행의 가운데, 의무실에서 맞이하는 휴가(休歌)

<민필>은 고독과 연대에 대해 노래하는 모던포크듀오로, 교내 대중음악 창작동아리에서 만난 기타(김민수)와 보컬(박용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최근 "당신의 새벽"이라는 테마로 빛과 어둠, 잠과 불면의 새벽에 대한 작은 앨범을 준비하며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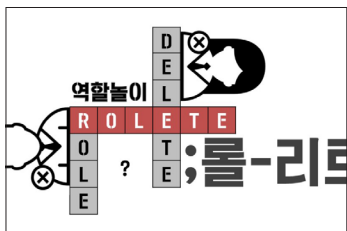


전시 | 전체관람가
7/19(수)-7/22(토) 15:00-22:00 | □M | 상시전시 |

출연진 박세진 천윤기

「PONER UN LETRERO」는 길거리에 질서 없이 제각기 무성의 소음을 내는 현란한 네온사인이 광고되어야만 하는 상황과, 모두가 현란한 탓에 오히려 눈에 띄지 못하는 것이 마치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과 닮아 보이는 모습에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전시품입니다.

<박세진, 천윤기>는 2013년 '일시적'이라는 프로젝트 팀으로 프린지에 첫발을 내딛은 후 2015년은 혼자 오롯이 전시에 임했던 박세진 작가와 포토그래피이자 필름메이커인 천윤기 작가가 만나, 각자의 활동에서 느껴왔던 다양한 이미지들을 함께 구현해 내보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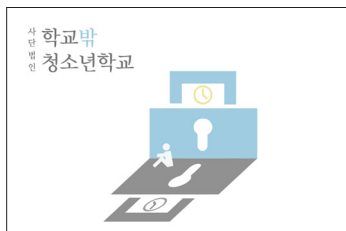


연극 | 만 13세 이상 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 16:00, 19:00 |
 7/20(목)-7/21(금) 16:00, 20:00 |
 7/22(토) 15:30, 20:00 | ■C-13 | 40분

제작진 황지현 조재혁 오세민 이하은
 출연진 김소권 박수아 박예선 박찬민
 김병만 김효석

인간의 꿈, 인간의 감정, 사랑이나 우정 같은 그런 것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걸까? 맹목적대량자살사태, 롤리트. 이것은 테러가 아닙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면을 쓰는 것. 구매는 입구의 가면장수에게 문의 하세요.

관객이라는 이름의 지친 나그네들에게 공연이라는 이름의 술과 안주를 대접하는 예술가라는 이름의 주도들이 모인 곳, <봄의 주막>입니다.



연극, 전시 | 청소년 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7/21(금) 18:00, 20:00 |
 7/22(토) 상시전시 | ■D | 40분

제작진 김가현

출연진 이지 김수현 최유림 김가현 이상우

모든 반대를 뿌리치고 겨우 자퇴했지만, 학교밖 청소년이 다녀야 하는 학교밖 청소년 학교가 또 있다고? 세 자퇴생이 겪었던 황당한 이야기들,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편견들을 학교 밖 청소년 학교의 커리큘럼에 모았다. 학교 밖 청소년 학교의 공개수업이 열리는 날은 2017년 7월 단 4일간. 누가 모범적인 자퇴생인지, 문제적인 자퇴생인지 여러분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일찍 알아버린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과 얼마나 닮아있을까?

학교 밖 청소년 연극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부당한 운영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던 세 명의 자퇴생. 이제 어른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연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곳까지 같이 가는 과정의 예술, 억울함 없는 예술을 지향하는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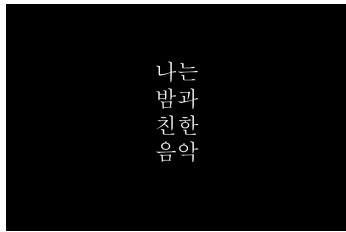
연희거리극 | 전체관람가
7/19(수)-7/21(금) 18:30 |
7/22(토) 15:00 | ■CD-L | 40분

제작진 전동일 고안나 송희경
출연진 전동일 고안나 권지혜

두 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연주와 퍼포먼스가 만들어지고, 경기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자유로운 JAM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살판’은 풍물, 춤, 소리, 굿, 극, 음악 등 전통예술의 창조적 구현과 독자적인 예술양식을 창출하고, 공공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T&S Project’는 태평소 연주자가 인도 음악과 인도 악기인 ‘샤나이(Shehnai)’로부터 받은 영향을 태평소 그리고 ‘샤나이(Shehnai)’로 표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음악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7/22(토) 20:00 | □CDJ | 40분
7/22(토) 18:30 | ■CD | 40분

제작진 박진형
출연진 오한균 이재영 김원영 태양양
달무늬

나는 밤과 친한 음악.
텅빈 방안에 오직 어둠과 음악만 가득 채우면.
우리는 함께이면서 온전히 혼자가 되고,
혼자이면서 온전히 우리가 됩니다.

<살롱시소>는 수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복합 문화공간이자 기획단체입니다. 주로 음악을 매개로 작업하며, 로컬뮤지션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Beyond local, Rock the world. 지역에서의 사랑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인 사랑을 꿈꿉니다.



가면극, 거리극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7/22(토) 16:00, 21:20 |
■F | 40분

제작진 이수림

출연진 강지윤 김우현 정신욱 조정기 최낙성

크로마토그래피란, 시료들의 혼합물을 이동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유’라는 키워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리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연 시간 외에도 전시가 진행됩니다.

*16시 공연은 기체편, 21시 20분 공연은 고체편으로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유, 대신 전해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을엽서에 적어주세요! :-)

프린지에서만큼은 학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촉매가 되고 싶습니다. 관객들에게 서서히 스며들어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은 <시나브로>입니다.



연극 | 만 13세 이상 관람가

7/21(금)-7/22(토) 17:00, 19:00 |
■AB | 25분

제작진 변여울 김세인 서지현

출연진 강유주 김병호 김선혁 김예지
문학진 이보아 이유나 조관훈

「VR;발악」은 미세먼지가 온 도시를 뒤덮은 황폐한 미래도시를 배경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항의를 하며 시작됩니다.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알 수 없는 물체가 등장하면서 항의는 멈추게 됩니다. VR기계를 착용한 시민들은 항의를 멈추고 점점 VR기계에 중독되어갑니다.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며,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상실합니다.

<시파 프로젝트>

“세상은 매 순간 변하는데, 왜 새로운 사람들이 과거의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뭉친 청년예술집단입니다. 예술집단 시파(始波) 프로젝트는 발칙한 상상력을 토대로 장르와 형식의 파괴 및 융합을 통한 연극적 실험과 도전으로 예술의 시대적 파급효과를 지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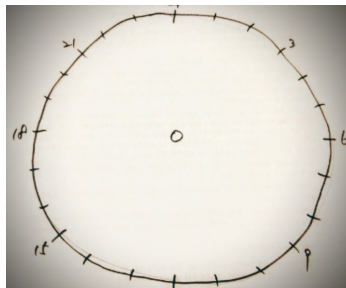
무용 | 만 13세 이상 관람가
7/22(토) 19:00 | ■F | 35분

제작진 이미령 정은혜 양은정 이채은
손연우 최병훈
출연진 이미령 심미지 정은혜

우리는 각자의 시공간에서 서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과 타자의 만남으로 인하여 공간 속 관계가 형성됩니다. 주체와 객체의 만남은 우연적이면서도 필연적으로 생겨납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자신과 타자간의 소통과 만남은 '흔적'으로 남게 되며, 그 누구도 아무런 '흔적'없이 자신이 있었던 시간과 공간에서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엔 흔적으로 도배되어 있고, 그들의 흔적은 존재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1장-살의 우연 / 2장-나와 타자의 공간 /
3장-그들의 흔적

<연엔딩>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축제 콘텐츠, 행사기획, 무용 영상 시리즈 제작, 다원예술 창작 공연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며, 무용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작하는 예술단체입니다.



연극 | 전체관람가
7/21(금)-7/22(토) 17:00 | ■EF | 60분

제작진 신문영 김승연
출연진 신문영 김승연

「스피드 잡스 - 질풍노동의 시대」
대통령 후보들은 누구나 실업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규직이 되지 못한 사람들, 소위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 중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하면서 먹고 살 만큼의 수입을 얻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명 '투잡'이라는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야말로 '질풍노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마인드프로젝트>는 탈극장 연극을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자기서사(Self-Narrate)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연극을 창작하고 장소맞춤형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큰 덩치로 육중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작지만 섬세한 이야기들로 민첩하게, 관객과 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합니다.



낭독극 | 만 18세 이상 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7/22(토) 20:00 | ■C-4 | 50분

제작진 박지혜 전민구

출연진 김나연 송은정

어느 날 갑자기 밀실에 갇히게 된 안나.
그곳에서 손자를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밀실에서 탈출하기 위해 숨겨진
암호를 풀어갑니다. 패배자가 되어버린 인간
내면의 페르소나, 그 안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위즈덤 프로젝트>는 개인 프로젝트로
열정을 가진 젊은 창작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연극, 영화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창작 작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악 | 전체관람가

- 7/19(수) 20:00 | ■CD | 10분 |
20:30 | ■프린지클럽 | 30분 |
21:30 | ■CD | 30분 |
7/20(목) 17:00, 18:00 | ■C-1 | 20분 |
예약제 공연 |
21:30 | ■CD | 30분 |
7/21(금) 17:00, 18:00 | ■C-1 | 10분 |
예약제 공연 |
20:00, 21:00 | ■CD | 10분 |
7/22(토) 17:00, 17:30, 18:00, 18:30 |
■C-1 | 10분 | 예약제 공연 |
19:30, 21:30 | ■CD | 10분 |
7/19(수)-7/22(토) | ■A | 상시전시

제작진 독고진

출연진 조요인 이재원 전수빈 장세훈
정의영 이경민 장주는 신윤아 이다경
박수현 김지우 유승연

「노·닐다」 가야금 연주자들의 공연이며,
색다른 공간과 밤하늘을 배경으로 삼아
전통악기와 그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본
공연은 악기 본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며, 생활 속의 작은 소음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우리 악기의 소리와 음악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공연과 더불어 '이재원X유승연',
'조요인X유승연'의 상설 전시와 1회의 설치공
공연이 진행됩니다.



복합장르 | 만 13세 이상 관람가 |
예약제 공연

7/21(금)-7/22(토) 16:30, 18:00, 19:30
| ■ C-11 | 30분

제작진 이상호 이민재 장재원
출연진 박성진 박준성 안애린

「이반의 웨도우복싱」은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크린 속의 배우와 무대 위의 배우는 대사를 하는 건지, 자신의 말을 하는 건지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공연의 형식과 장르, 연기를 구분하는 경계를 파괴함으로써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간의 경계가 허상임을 폭로하는 작품입니다.

훈은 오랜 친구인 서연을 좋아한다. 하지만 서연이 좋아하는 남자(동준)는 따로 있다. 훈은 서연을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면서, 동준의 번호를 얻어낸다. 그 과정에서 동준은 훈에게 자신이 게이임을 커밍아웃한다. 훈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요일의 사람들>은 20~30대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아이들’은 역할놀이를 하며, 모두가 배우가 되어 카메라를 장난감 삼아 놉니다. 그리고 감독은 솔래로 삼습니다. 그렇게 카메라의 사각 프레임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 외에 다른 규칙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일요일마다 영화를 찍으며 놉니다.



무용 | 만 13세 이상 관람가
7/19(수), 7/21(금)-7/22(토) 17:00 |
■ BC | 20분

제작진 강연아 황원규
출연진 김가연

「그냥 그래」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는 누구, 여진 어디?
누구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잘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삽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맞는 것인지 꼭 정답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답은 없으며,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잘 버텨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당신을 잃어드립니다.”

<자유인>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하고 싶은 춤을 추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옆 동네 친구들이 만나 작품 활동을 하는 팀입니다.



뮤지컬 | 만 13세 이상 관람가
7/19(수)-7/22(토) 20:00 | ■A | 45분

제작진 김재훈 이강현 김상우 고정민
안서현 민복기 이창우
출연진 주변인들

뮤지컬 '레드' 갈라쇼는 뮤지컬 '레드'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쇼케이스입니다. 등장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레드'의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곡들을 미리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춤과 쇼에 집중된 뮤지컬에서 탈피해 밴드음악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간에서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주변인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우리만의 길을 걷는 집단으로, 2016년 연극 'Dog sees god', 2017년 연극 '우리정신병원', 'No, Again!'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용 | 전체관람가
7/19(수) 19시 | ■D | 20분 | 예약제 공연
7/20(목) 19시 | ■프린지클럽
7/21(금)-7/22(토) 16시 | ■CD
7/22(토) 20시 | □G | 20분

제작진 주혜영 박은비
출연진 주혜영 박은비

<시를 움직이다>는 시의 창작 방법을 무용 창작 방법에 대입시킴으로써, 창작이라는 것이 다방면의 시각에서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임을 환기 시키려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창작 방법 중 하나인 시적 허용을 '안무적 허용'으로 새롭게 도출하여 안무하는 방법을 건설해 보고자 합니다.

*시적 허용 : 시에서만 특별히 허용하는 문법적인 허용. 시적 화자의 감정, 정서 등을 표현하여 읽는 이에게 감동을 주고 정서를 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춤>은 춤의 장르나 성격,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문학, 연극, 미술, 음악 등 여러 매체들과 결합하여 작업마다의 특색 있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춤'하더라도 '주춤'거리는 우리들의 움직임들을 다시 움직이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관객참여 퍼포먼스 | 만 13세 이상 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7/22(토) 19:00 | ■C-2 | 120분

제작진 지성은 윤효병

출연진 지성은

결혼정보회사는 나이, 학력, 직업 등등을 기준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커플매니저는 입력된 조건들을 바탕으로 비슷한 수준 안에서 커플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정보회사는 늘어났고 커플매니저도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현상을 가법고 유쾌한 카드게임을 통해 결혼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문제들을 직시하는 시간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게임방 컨셉의 공간에서 관객이 커플매니저가 되어 완벽한 커플을 많이 매칭 시키면 승리하는 카드게임입니다.

작품을 통해 사회 곳곳의 갈등의 요소들을 들여다보고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각예술가, 배우, 연출가인 지성은입니다.



연극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21(금)-7/22(토) 19:30 | □J | 40분

제작진 변형열 김인규 심혜연

출연진 권강식 송누리 김지경

‘교집합’이란 제목에서 보이듯이 인간의 관계는 서로 얽혀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완전한 합집합으로 착각하고는 합니다. 그 관계가 무너지고 난 후의 모습을 연인의 이별과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표현하며 관계, 두 사람의 교집합에 대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창작모듬 잡담>은 ‘개인의 사소하고 고독한 이야기로 인간을 관찰하고 무대에 실험, 시연한다.’라는 모토로 희망이나 위로보다는 지금의 문제점이나 불편함을 꺼내는 안티 힐링을 지향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전시 | 전체관람가
7/21(금)-7/22(토) 20:00 | ■ F-BC

제작진 황지은 송여름 강훈구
박수현 유민지

두 사람의 아이디어 노트에 해당하는 영상 클립들을 공개, 재배치한다. 지은의 작업은 끊임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우리의 발, 그 발을 땅에 딛기도 전에 다시금 실어나르는 이동수단에 대한 것이다. 여름은 일상적이고 작은 움직임에 관한 영상작업으로 살아있음에 관한 단상들을 나열한다.

<창작집단 극과이것>은 2015년 고려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출신의 젊은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창단되었다.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당면한 문제를 그것이 아닌 것으로 치환하기 위해, ‘그까이거 (극과이것) 함 해보지 뭐’라는 마음으로, 작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무대와 무대 바깥, 작업자와 관객,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끊임없이 더 나은, 아까와는 다른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극을, 오늘도 이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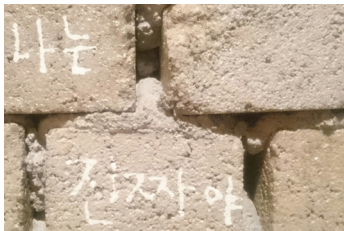


연극 | 전체관람가
7/19(수)-7/22(토) 20:30 | ■ E | 50분

제작진 박성원
출연진 이수현 박성원 광승일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이 문학, 예술, 연극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원작을 희곡에 둔 메타 소설을 다시 공연으로 각색해보는 실험적인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품의 주제인 실존에 대한 재인식과 닿아있는 독특한 작업에서 우리의 예술적 인식을 환기시켜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설과 희곡을 하나의 주제로 접목시켜, “용서와 죄책감”이라는 주제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창작집단 위선자>는 20대인 젊은 창작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연극을 만들어 인생을 노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극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7/22(토) 20:00 | ■C-7 | 30분

제작진 문문 목소 지원 민다홍 유지혜

수피아 이지윤 김문경

출연진 기푸름

「이방연애」는 나의 방과 나의 연애에 대하여, 10대부터 40대까지 쿼어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연극입니다. 다양한 세대의 쿼어 여성들의 삶을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 소수자들의 계보를 완성하는 데 작은 풀씨를 심고 싶습니다. 소수자이자 소수자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것에서 다른 여성들에게도 자신의 삶에 대해 증언하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작집단3355>는 문학, 영상,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인 실험공동체로 따로 또 같이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삶의 양식을 벗어나 거점을 발굴하고 일상과 현장에 예술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상영 프로젝트와 미디어 퍼포먼스 등을 여러 작은 공간들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저널 영상들과 실험 필름,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하고 배급하고 있습니다.



다원예술극 | 전체관람가

7/21(금)-7/22(토) 16:00, 18:00 |

■FA | 50분

제작진 홍보람 황유경 홍단비 고동욱 박일호

출연진 강선미 남지영 윤찬호 장세환

“숲의 피아노”는 ‘연주로서 관객에게 흥미롭게 다가가자!’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연주만으로도 충분히 볼(들을, 감상할)거리가 되긴 하지만, 거기에 다른 행위를 덧입혀서 좀 더 매력적인 볼(들을, 감상할)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 과정은 숲 속의 피아노 한 대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로 시작되어 음악(과 움직임)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고 감각적인 표현력으로 무대화하며 노력하며 즐겁게 공연하는 젊은 예술가 <창작집단LAS>입니다. 어느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는 한층 진보된 무대언어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도가 관객들에게 이성적, 감성적으로, 공감으로, 신선한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음악극 | 전체관람가

7/19(수), 7/21(금) 21:00 | ■H-1 | 15분

제작진 **곽동호 강순현 문순주**

출연진 **김도드라 곽동호 조세광**

한 여인의 꿈을 ‘탱고’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엮어 내고, 그 꿈을 통해 달콤한 환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꿈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가, 아르헨티나 음악 특유의 애절함이 다양한 매체(댄스, 미술)와 어우러지며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클래식 매직 유랑단>은 미술을 중심으로 댄스, 마임 등과 접목한 스토리가 있는 미술극을 제작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단체입니다.



클래식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22(토) 19:00 | ■C-15 | 60분

제작진 및 출연진 **김영아 손희정 원은영**

최은선 서보람 변미정 이희원

“클래식은 어렵다”라는 편견을 깨고, 더 나아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해설이 있는 콘서트 형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총 사계절에 어울리는 영화음악을 선보이며 관객에게 추억 속으로의 여행을 선사하겠습니다.

<CLEF arts>는 2014년 창단하여 열정과 감동의 연주를 만드는 단체로, 클래식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음악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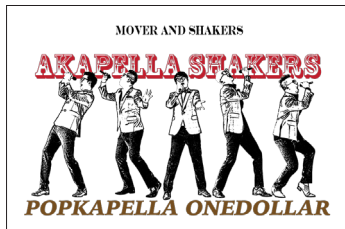
음악 | 전체관람가

7/21(금) 21:20 | ■프린지클럽 | 70분

출연진 하애정 박희정 이삼현 구승택
임승환 주디정 유주현 차영주 김미경
이혜성 김포들가락연구회

탄핵정국을 나라굿으로 하며 5개월 여를 보냈던 풍물꾼들이 광장과 길에서 풍물을 칠 수 밖에 없었던 심정을 각자의 작품에 담고자합니다. 국정농단의 사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될 수 있는 도깨비굿으로 마음과 의지를 모으며 추운 겨울 투쟁을 뜨겁게 보낼 수 있었으므로 도깨비난장굿으로 그 신명을 되살리고 풍물의 최대 특징인 현장에서 어울리는 흥을 나누고 싶습니다.

<풍물창작단 소용>은 풍물을 현재의 대중이 즐기고 생산하고 누리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전통의 풍물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자 만든 프로젝트 단체입니다.



아카펠라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7/22(토) 18:00 | □CDJ | 40분

7/19(수) 21:20 | ■프린지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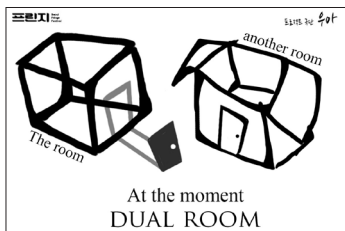
7/20(목)-7/21(금) 21:20 | ■CD-L

제작진 김민수 장윤선 비비아나 킴

출연진 이한샘 이재훈 명노경 심태호
김충만

「섹션콘서트 & 음치닥터콘서트 '이거슨 팝급실'」중 '섹션콘서트'는 클래식에서부터 팝, 대중가요, 애니메이션 메들리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곡은 물론, 앨범에 수록된 스탠드, 밀리터리 수프 등 꾸준한 사랑을 얻고 있는 원달러만의 곡을 재치 있게 들려드립니다. 또한 '음치닥터 콘서트 이거슨 팝급실'은 저마다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음치닥터가 특급처방을 해드리는 공연입니다.

<팝카펠라 원달러>는 신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어우러지는 "아카펠라"에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를 접목하여 "팝카펠라"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고 있는 그룹으로서, 남성들만의 세련되고 안정적인 보이스와 하모니,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대중들에게 그들만의 특별한 노래와 유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팀입니다.



연극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7/22(토) 19:00 | ■C-5 | 50분

제작진 성화숙 김성관 이여운 고경태
출연진 김성민 오은지 염수지 고경태
김연우 손승범

“At the moment” 어느 한 순간의 느낌을 하나의 주제로 잡고 여러 이야기를 한데 어우르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프린지에서는 “At the moment - 듀얼 룸”이라는 컨셉으로는 상반되는 2가지 정서의 방을 꾸며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방- [더 룸], 다른 하나의 방- [어너더 룸]에서 두 가지 공연이 동시에 보여집니다.

<프로젝트 극단 우아>는 공연의 품위를 ‘우아하게’ 지키며, 관객들을 ‘우아’하는 탄성을 내지르게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을 사랑하고 공간을 채우는 열정을 가진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극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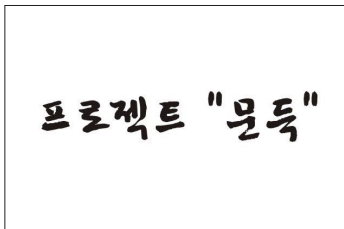


오브제 퍼포먼스 | 전체관람가
7/21(금)-7/22(토) 19:00 | ■F | 40분

제작진 원율미 박승원 전보형 배현진
반짝반짝사진방
출연진 김태희 박관호 임영은 강지원
이영아 김영신 윤혜정 장미지 원율미

단세포 생물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생명체의 마지막까지 존재할 정도로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그토록 강한 생명력의 비밀은 단순하고 유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세포 생물의 내부공생은 하나의 단세포가 다른 단세포를 만나면 새로운 단세포 내지는 다세포생물이 되는 과정으로 서로를 잡아먹지 않고 두 생물체가 만나 새로운 생물체가 되는 유연한 합을 이룹니다. 복잡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내몰린 현대인들에게 단세포 생물의 유연하고 근원적인 몸짓은 치유의 힘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생명체와 나 사이에 부여된 캐릭터를 바라보는 즐거움을 맛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본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락교>는 즐거움을 나누다, 즐거움을 교감하다란 뜻으로 연극, 퍼포먼스, 무용 공연 등을 2009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지속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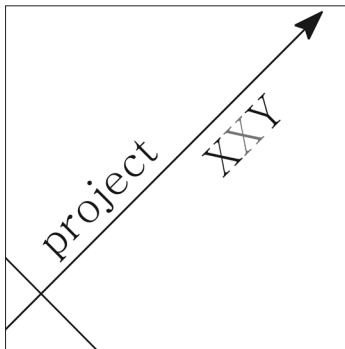


연극 | 만 13세 이상 관람가 | 예약제 공연
7/20(목) 18:00 | 7/21(금) 16:00, 18:00 |
7/22(토) 16:00, 18:30 | ■H-2 | 45분

제작진 허재훈 이예린 조예진 전치하
백성수 박화홍
출연진 고건우 이슬기 손윤한 김경민
최수지 백성수

「개인적 극장, '직면의 섬」은 밀폐된 박스 형태의 1인용 극장으로, 개인적 극장에는 한 명의 배우가 한명의 관객과 마주합니다. 배우는 지극히 사적인 사건을 독백합니다. 인물들이 겪고 있는 사건들은, 많은 청춘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불확실성(Gray Area), 자기 합리화, 정의에 대한 경계(boundary),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수반되는 보호와 굴레(안정과 억압)의 양가성, 관계 안에서의 통제와 조정, 안정성에 대한 집착이라는 6가지의 이야기로 풀어집니다.

<프로젝트 문득>은 자율적 창작 과정과 다양한 예술 형식을 추구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모인 창의적 문화 예술 집단입니다. '문득'이라는 팀명과 같이 어떤 순간, 문득 떠오르는 작은 생각을 확장시켜 궁극적으로 네러티브를 가진 연기와 움직임이 있는 무대를 지향합니다.



연극 | 전체관람가
7/19(수)-7/20(목) 17:00, 19:00, 21:00 |
7/21(금)-7/22(토) 17:00, 21:00 |
□CD | 20분

제작진 김지은 류세일 심효민 박지현
정경인 강전이 곽유진 김나은 이원탁
표해님 박예진 심이다은

여자와 남자, 이분법적 성별 구분으로 담아야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별정체성과 지향이 만들어낸 좌표에서 질문은 출발합니다. 이 좌표의 x축 양 끝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y축 양 끝에는 남자를 좋아한다 여자를 좋아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한 개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과연 찬성 반대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여성이며 레즈비언인 사람의 인권을 절반만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라는 젠더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 사람들이 모인 <프로젝트XXY>입니다.



뮤지컬 | 전체관람가 | 예약제 공연

7/19(수)-7/22(토) 19:30 |

■CD-M | 20분

제작진 이정백 정혜원 김진형

출연진 박기태 유지은 전주일

「쉬맨」은 여자처럼 살아온 남자주인공 진욱과 죽은 오빠 대신 남자처럼 살아온 희진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용기를 얻는 뮤지컬로, 세상의 시선에서 이상하고 이해받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사랑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창작공동체 <한>은 “Here and Now”의 약자로, 지금 이 순간을 누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배우와 관객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사람들 간의 이해를 돕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클래식 버스킹 | 전체관람가

7/21(금)-7/22(토) 19:00 | ■A | 100분

제작진 오소미 유아진 이영아 장승연

출연진 유은결 전하은 김새롬 김은샘

김은수 유민상 임성결 이은화 김나연 고훈

권나현 정성우 함동근 김희연 유영현

안혜린 남지수 이장미 정유빈 송현지

엄하나 강연경 정찬인 이여를 양민지

강수지 권지원 임현주 배인애 임현수

공정인 김누리 이한길 정인선 이주원

정철규 변영재 강민지 장한별 김유진

서정대 이영림 김나경 윤좌영 송은집

양지혜 박서진 서태훈 신은재 안준형

이상준 한유향 류승화 윤지연 박병찬

서애진 노희석 김혜린 소현진 김주는

신채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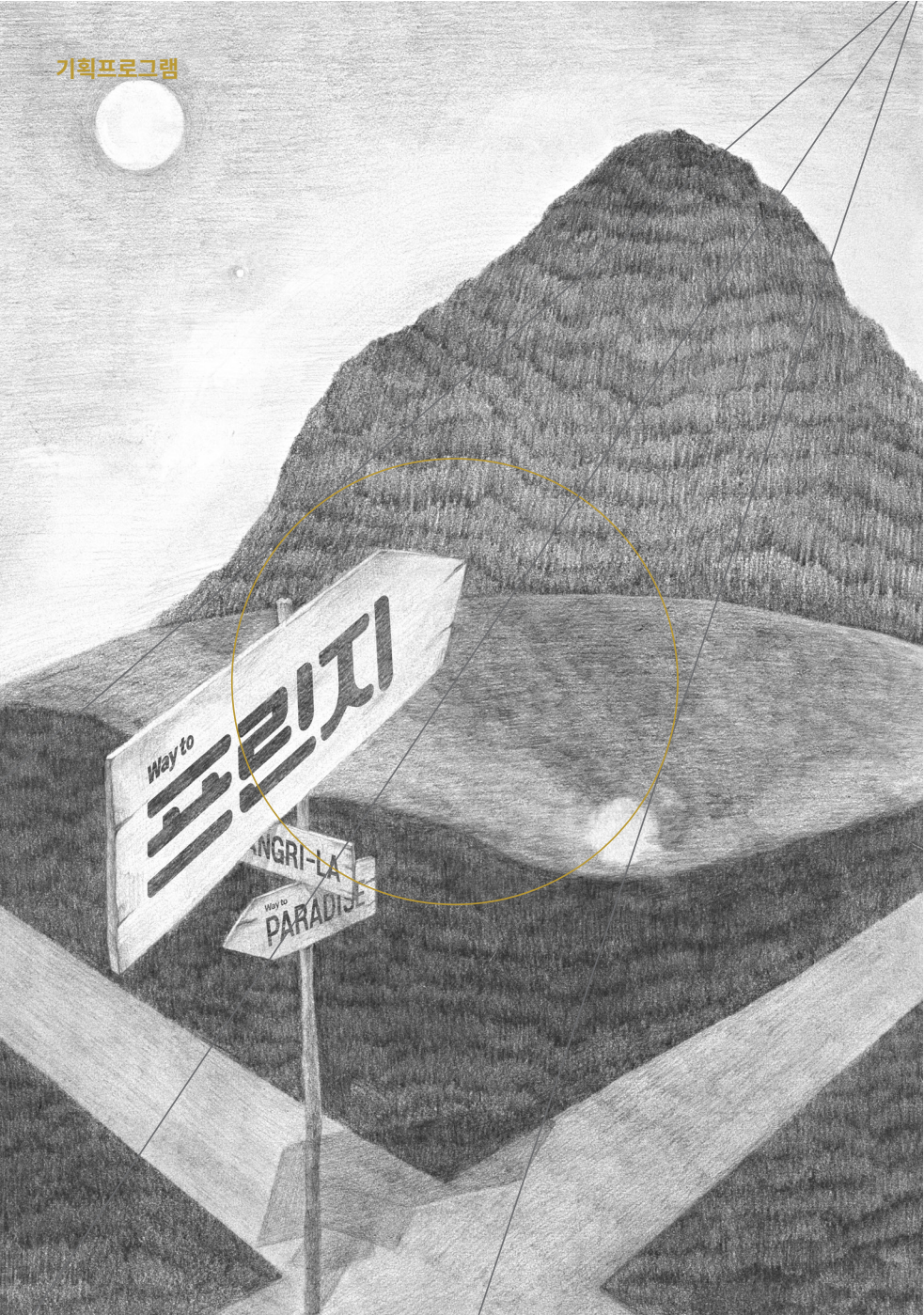
“후즈아트”는 각 예술 분야의 전공자들과 대중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만의 소유하는 예술이 아닌 소통하는 예술을 지향하는 음악 전공자 단체입니다.

누가 예술가일까요? 단지 음악을 하는 전공자들만이 예술가일까요? 아니요, 예술을 즐기는 우리 모두가 예술가이자 예술입니다.

후즈아트가 여러분의 청춘 시절을 들려드립니다.

·1부 19:30-20:10 <동심의 세계로>

·2부 20:30-21:10 <청춘을 말하다>



기획프로그램 1.

프린지로 떠나는 여행

<SNS 개막 퍼포먼스 - Way To Fringe>

일시

7/19 15:00

장소

각자의 온라인 채널
(e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SNS 개막 퍼포먼스 - Way To Fringe’는 관객, 아티스트, 인디스트, 스태프 등의 축제 구성원이 다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자의 온라인 공간에서 프린지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퍼포먼스를 함께해주세요.

·개막 퍼포먼스에 참여해주세요!

참여방법

방향을 표시하는 무엇인가(ex. 몸짓, 그림, 표지판 등)를 사진으로 찍어 본인의 SNS에 올려주세요.

해쉬태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way_to_fringe
#여행의시작 #같이가요 #여행에미치다

‘Way To Fringe’는 프린지로 가는 길, 프린지로의 여행을 의미합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고, 마주치고,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프린지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만나게 될 길들을, 그리고 각자의 프린지를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기획프로그램 2.

안녕, 스무 번째 프린지

<프린지와 안녕하는

20가지 방법>

일시

7/22(토) 22:00

장소

프린지클럽

일 년을 기다려 만난 프린지와 다시 ‘안녕’ 할 시간입니다. 스무 번째 프린지를 함께 한 구성원들 20팀/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프린지와 인사하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저마다의 몸짓, 음악, 목소리, 그리고 눈빛 각자의 방식으로 전하는 20가지 인사에 함께해주세요.

프린지 안녕, 안녕.

·프린지와의 안녕을 함께하고 싶다면!

모집기간

~7/22(토) 16시 (신청 마감시 종료)

참여방법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 내

‘프린지와 안녕하는 20가지 방법’ 게시물 참고



기획프로그램 3.

그때 그 프린지를 기억해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아카이브

전시 : 1998~2017>

전시 해설 프로그램

7/19(수), 7/20(목)

17:30

7/21(금), 7/22(토)

17:30, 19:30

장소

■BCDE

1998년 독립예술제를 시작으로 매해 여름마다 축제를 개최해온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올해로 20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그동안 축제를 통해 만들어온 기록들을 선별하여 전시의 형태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축제 아카이브는 축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기록들이자 독립예술을 둘러싼 쟁점들과 그 지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축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축제를 둘러싼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살펴보고, 축제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 프로그램 4.

경기장 공간탐구 레지던시

‘프린지 빌리지’

‘프린지빌리지’는 축제 참여예술가들이 경기장 내 마련된 스카이박스를 한 달간 ‘빌리고 점유’하여 작품과 공간을 실험하고 탐구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7’에 참여하는 예술가들 중 경기장이라는 공간을 예술적 가능성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예술가 개인 및 단체 총 9팀이 자발적으로 ‘빌리지(마을)’의 입주민이 되어 다양한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작업과정과 결과를 작품에 녹여냅니다. 총 3회의 빌리지 반상회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연대를 함께 자리를 가집니다. 입주기간 동안 아티스트들 각자의 시선으로 써내려가는 ‘공간탐구일지’와 경기장 내에 생긴 이상한 빌리지(마을)를 기록할 ‘아티스트 인터뷰’ 등 빌리지의 작업과정을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7’ 기간 중 선보입니다.

참여 예술단체/개인 (총 9팀)
극단 페로자, 다도 스튜디오, 마트(MArt),
봄의주막, 사단법인 학교밖청소년학교,
창작집단 위선자, 창작집단3355,
프로젝트 극단 우아, 프로젝트XXY

입주기간 6/19(월) - 7/14(금)

기획 프로그램 5.

독립예술 집담회 7th.

“독립예술, 앞으로 어떻게 할거니?”

주제

독립예술, 앞으로 어떻게 할거니? -
프린지의 미래를 상상하기

일시

7/17(월) 19시

part 1. 축제에서 플랫폼으로,
프린지는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공간, 미학, 축제

part 2. 프린지가 가야할 곳,
주변일까, 경계일까, 예외일까?
방향, 관계, 의미

part 3. 프린지가 꾸는 꿈,
백일몽에서 예지몽으로!
제도, 세대, 지역

독립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자리,
제7회 독립예술집담회가 열립니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과 함께 독립예술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독립예술에 대해서, “어디까지 왔니”(현황),
“어디로 가고있니”(전망), “누구랑 가고
있니”(파트너십), “누가 하고있니”(새로운
주체) “잘하고 있니”(반성) 과 같은 질문을
통해 독립예술의 ‘오늘’을 살폈다면, 이번에는
독립예술의 ‘내일’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공공과 제도, 자본에 의해
길들여진 예술 생태계 안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경제위기와 존재위기로 축소된 예술가의
작업을 어떻게 지지해 왔는지, 우리의 지난
궤적을 통해 독립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프린지의 미래를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기획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관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기획 프로그램 6.

소규모 예술수다

<올모스트 프린지 :>

마이크로 포럼>

‘올모스트 프린지’는 독립예술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봄에는 “창작환경, 이게 최선입니까?”라는 주제로 경계예술가와 지속예술가를 둘러싼 제도, 창작현장에 존재하는 착취와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창작자가 직접 구상하는 이상적인 창작환경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7’ 축제 기간에는 ‘마이크로 포럼’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축제 참여 예술가가 직접 포럼의 주제를 제안하고, 진행 방식을 고민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봄의 포럼이 크고 거시적인 주제를 다루었다면, ‘마이크로 포럼’은 좀 더 미시적이고 작은 주제와 규모로 이야기자리를 마련합니다.

●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일시, 장소가 공지됩니다.

2017년 '올모스트프린지_봄' 다시보기

1일차.

“제도, 이게 최선입니까?”

세션1. 나는 창작자입니까?
“신진”, 경계 예술가의
시선으로

세션2. 창작자로 살아가기,
가능합니까?
지속예술가의 시선으로

2일차.

“현장, 이게 최선입니까?”

세션1. 우리의 작업은 서로
존중받고 있습니까?
예술계 내 착취에 대해

세션2. 우리는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합니까?
예술계 내 차별에 대해

3일차.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세션1. 왜 당연한 듯
넘어가지요? 예술계에 아무도
묻지 않는, 그러나 모두가 묻고
싶었던 질문들에 대해

세션2. 어떤 창작환경을
꿈꾸나요? 창작자가 바라는
환경을 함께 구상하기

기획 프로그램 7.

당신을 기다리는 특별한 선물 예술워크숍 <여행자의 동굴>

일시

축제 기간 중 상시운영

장소

■BCDE

프린지 여행에 특별함이 더해지는 시간, <여행자의 동굴>에서 특별한 경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한 여름날의 축제는 모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발 길 닿는 곳마다 이어지는 공연들, 예상치 못한 장소가 공연장이 되는 순간들, 작렬하는 태양과 무더위에 흐르는 땀, 끝 모르게 이어지는 걸음걸음걸음. 축제 속 여행이 주는 즐거움과 고난과 고통이 묘하게 뒤섞여 피로감이 느껴질 때 짬, 여행자의 동굴로 오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마법의 신발을, 더위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신비의 물을 얻게 될지도. 특별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유아 쏘 스빠셜.

기획 프로그램 8.

프린지 네트워킹 프로그램 <프린지 속 네 가지 색깔>

제작진

고대훈, 신일호, 정세영, 안종민

출연진

유니파이(Uni-Fi),
고릴라크루(Gorilla Crew),
스트로벅스(Strawbucks)

일시

7/20(목) 21:20

장소

프린지클럽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하나의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프린지 속 네 가지 색깔’이란 주제로 개성이 강한 서로 다른 장르가 한데 뭉쳐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새로운 공연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음악으로 인정받는 실력파 밴드 ‘유니파이(Uni-Fi)’, 세계 최고 레벨의 스트릿 댄스팀 ‘고릴라크루(Gorilla Crew)’, 캘리그래피 퍼포먼스팀 ‘스트로벅스(Strawbucks)’가 선보이는 본 공연을 통해 관객과 스태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될 것입니다.

본 공연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서 만난 참여예술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융합과 기존의 틀에 박힌 공연장소의 틀을 깨고 공간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프린지 속 네 가지 색깔’이란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기획 프로그램 9.

인형 엄마 엄정애 인형극워크숍

<가방 속 이야기>

제작진

엄정애 최은미

참가자

김동환 김리라 김미섭 박진아
신혜정 이경희 이희원 장애실
정유림 지원숙 차선희 황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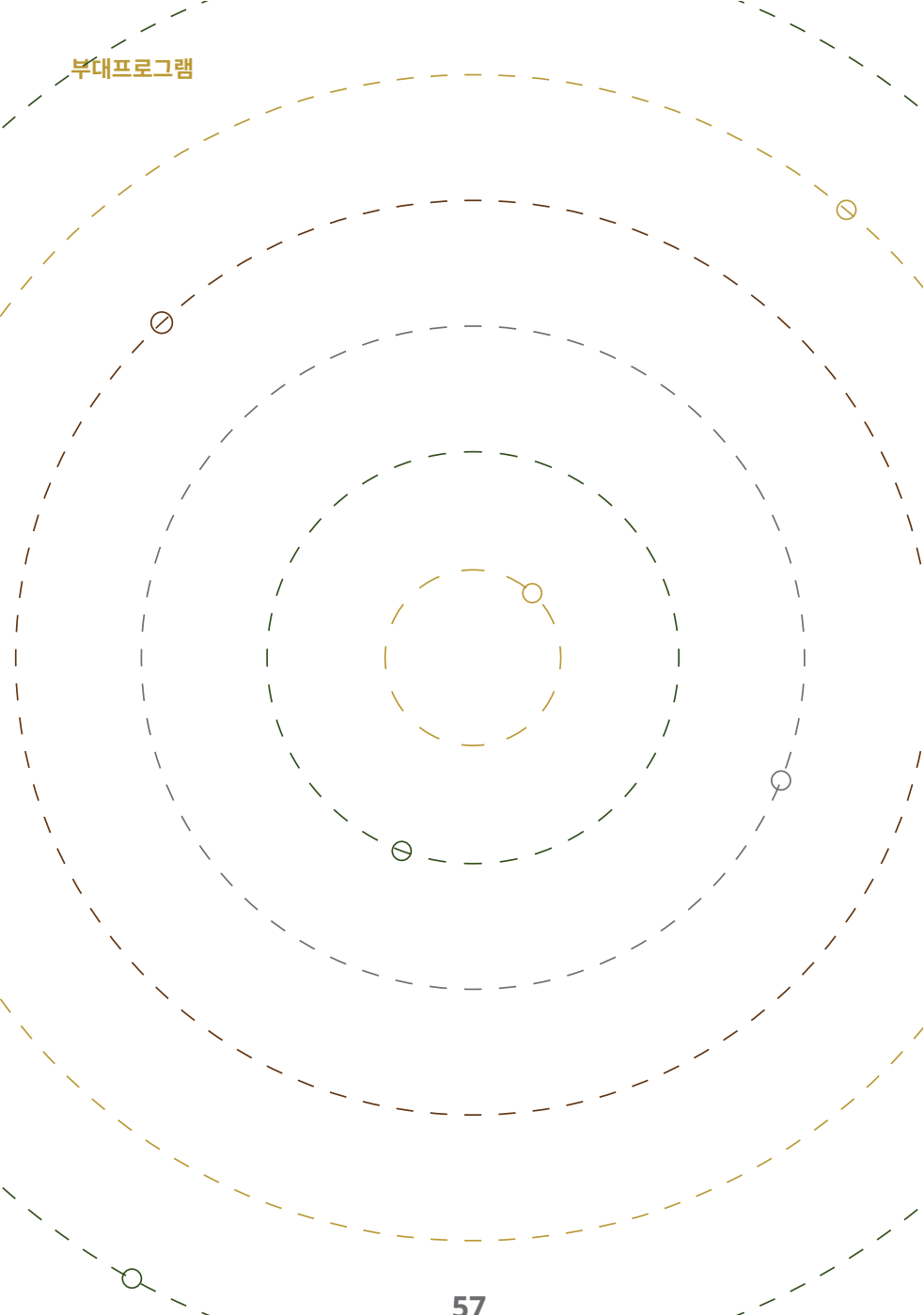
2013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이어져 온
프린지의 오랜 친구, 인형 엄마 엄정애의
인형워크숍 ‘가방 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인형을 사랑하고 인형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찾는 창작자들과 만듭니다. 축제가 시작되기 한
달 전 부터 프린지 빌리지에서 엄정애 선생님과
함께 자신만의 인형극을 제작합니다.

종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법을 배우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작품의
결과물은 축제기간 중 발표합니다.

●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일시, 장소가 공지됩니다.





부대프로그램 1.
먹고, 마시고, 놀자
<프린지클럽>

프린지클럽 운영시간
평일 14:00 - 23:00
주말 13:00 - 23:00

독특한 공간, 새롭게 변신하게 될
프린지클럽에서의 신나는 파티타임!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 왔다면 축제의 중심
공간인 프린지클럽으로 놀러오세요.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슬로건처럼 축제를
가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식음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행'이라는 컨셉에 맞추어 산장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프린지 클럽에서
자유로움과 여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특별한
공연과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프린지클럽 공연 단체/개인(6팀)
극단 타쇼, 마트(MArt), 민필, 유어에 가야금
프로젝트, 팝카펠라 원달러, 풍물창작단 소용



부대프로그램 2.
아티스트와 함께
<관객과의 대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선한 충격! 새로운 공연, 새로운 아티스트의
만남!

자유 참가작 관람 후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해보세요. 아티스트와 대화를 나누며
작품을 더 깊고 재미있게 감상해 보세요.
시원한 바람, 해질녘 노을이 아름다운
프린지클럽에서 아티스트와의 만남을
기대해주세요.

●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일시, 장소가 공지됩니다.

부대프로그램 3.
올해도 고마워요.
<후원의 밤-한여름 밤의 프린지>

일시
7/21(금) 19:30

장소
프린지클럽

프린지의 원동력! 프린지의 힘!
프린지 후원회원!

그동안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을 지지해주신
후원회원들의 응원속에서 올해도 뜻깊은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후원회원을
위한 '후원의 밤 - 한여름 밤의 프린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프린지클럽에서 진행되는 '후원의 밤'에서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즐기며 지난날의
추억을 나누는 자리로 빛내주세요.

부대프로그램 4.

서울 곳곳에서 미리 만나는

<팝업프린지>

축제 시작 전 서울 도심 곳곳에 등장!
인디스트와 함께하는 사전홍보 캠페인
‘팝업프린지’가 진행됩니다.

할인 티켓 구매부터 2017년 페스티벌
기념품까지 만날 수 있는 시간

현장 이벤트와 함께 프린지를 탐색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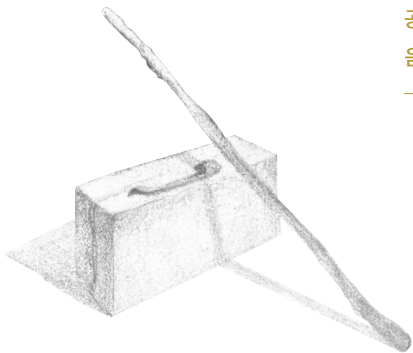
* 이벤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포스터, 리플렛,
팝업프린지를 찍어서 자신의 SNS에
공유해주세요. 응원의 메세지도 한마디
해주세요. 해시태그 필수!!!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7

#seoulfringefestival#fringe)

공유하신 분들 5분을 추첨하여 프린지클럽에서
음료 1잔을 무료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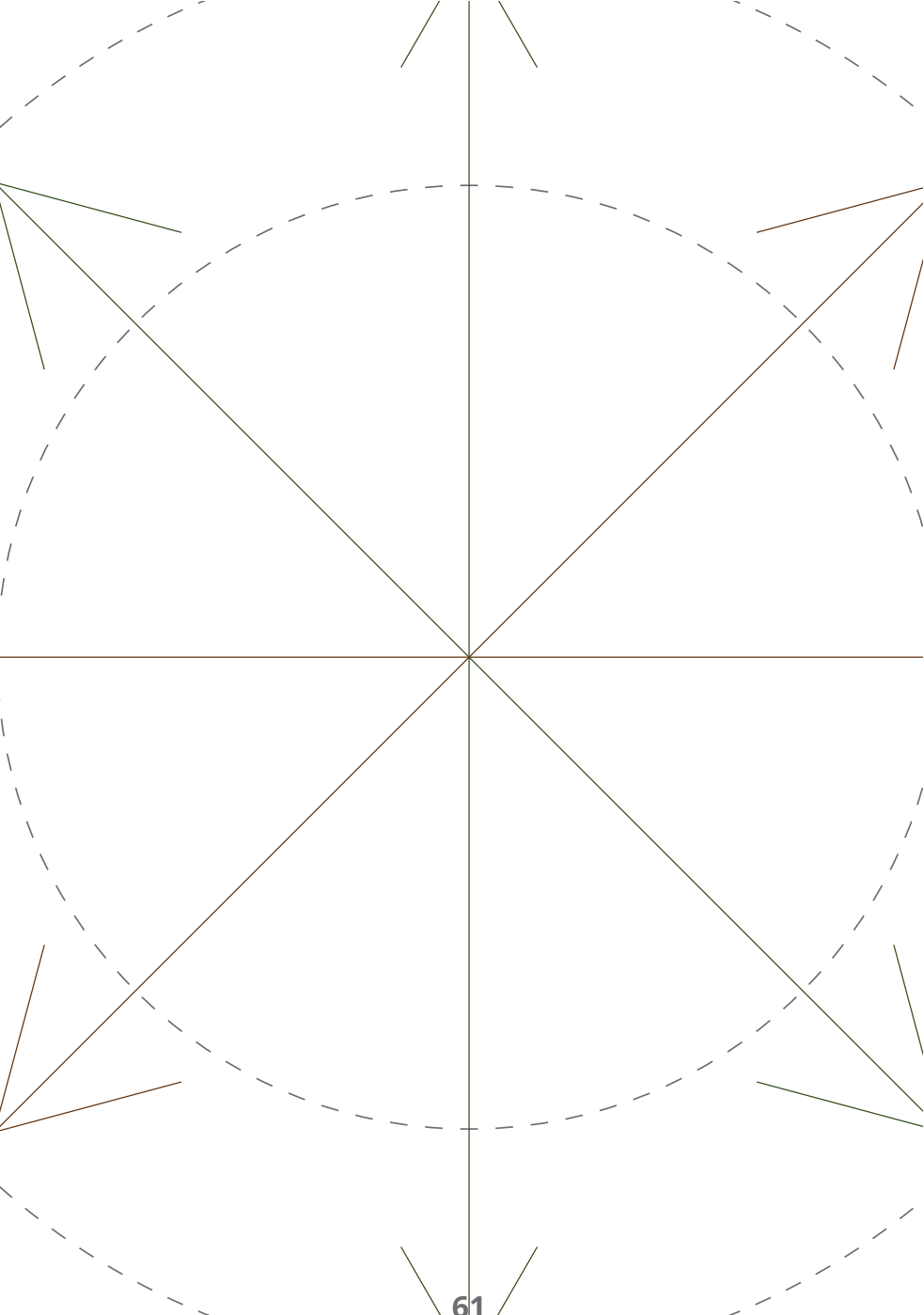
부대프로그램 5.

잘했어, 수고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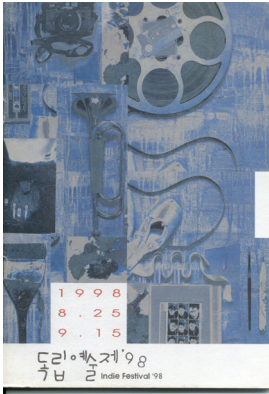
<프린지애프터파티>

뜨거운 여름, 열정과 땀으로 함께 만든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7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축제에 참여했던 아티스트, 스태프,
인디스트(자원활동가), 관객들과 함께
여름날의 프린지를 추억하고 이야기합니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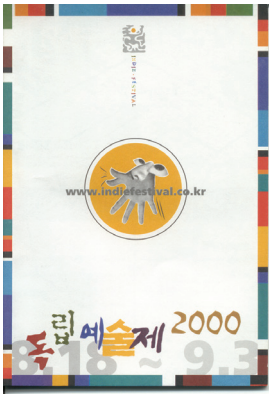
트렌디한
문화를
즐거워
하는
사람들

- 1 기간 1998.8.25 ~ 9.15
장소 마로니에 공원 및 대학로 일원
 15여개 실내외공연/전시장 및 거리
규모 84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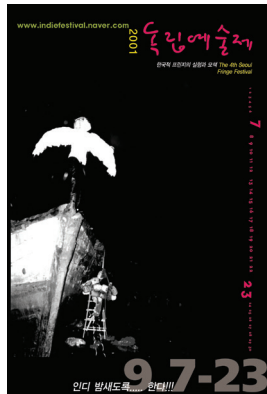
문화를
즐거워
하는
사람들

- 2 기간 1999.9.17 ~ 9.26
장소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한국정원
 야외무대 등 8개 실내외 공간
규모 169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바라이어티쇼
실용과
대안,
교류와
네트워크

- 3 기간 2000.8.13 ~ 9.3
장소 대학로 일원 15여개 실내외공연/
 전시장 및 거리
규모 184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인디
문화
의
역사
시작

- 4 기간 2001.9.7 ~ 9.23
장소 홍대 일원 30여개 실내외공연/
 전시장 및 거리
규모 421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On the Road 아시아를 향한 도약

- 5 기간 2002.5.25 ~ 6.15
장소 홍대 일원 20여개 실내외공연/
 전시장 및 거리
규모 149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아주열정 亞州熱情 Asian Fever -
 프링지프렌드 문화기작전”

- 6 기간 2003.8.13 ~ 9.7
장소 홍대 일원 20여개 실내외공연/
 전시장 및 거리
규모 216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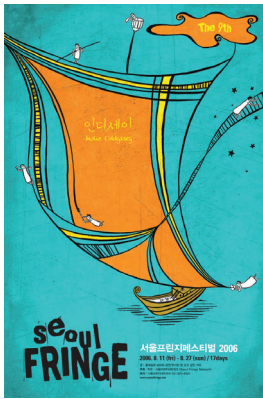
인디발발 -
 너희가 독립예술을 아느냐!

- 7 기간 2004.8.20 ~ 9.5
장소 홍대 일원 20여개 실내외공연/
 전시장 및 거리
규모 312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몽유열정가 - 아시아 독립예술의
 미래, 꿈꾸는 열정의 축제

- 8 기간 2005.8.12 ~ 8.28
장소 홍대 일원 20여개 실내외공연/
 전시장 및 거리
규모 297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인디세이 Indie-odyssey -
새로운 예술을 발견하는 축제

- 9 기간 2006.8.13 ~ 8.27
장소 홍대 일원 30여개 실내외공연/
전시장 및 거리
규모 333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독립예술은 현재진행형

- 10 기간 2007.8.13 ~ 8.29
장소 홍대 일원 45여개 실내외공연/
전시장 및 거리
규모 258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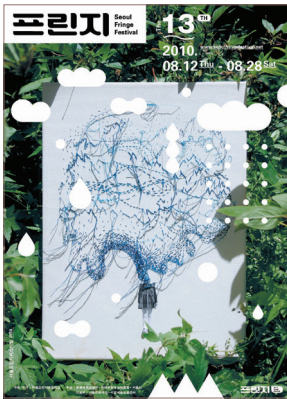
2대부분 예술제로 재정비되는 축제

- 11 기간 2008.8.14 ~ 8.30
장소 홍대 일원 45여개 실내외공연/
전시장 및 거리
규모 258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예술가의 '다음'을 모색하는
Post Fringe Project

- 12 기간 2009.8.13 ~ 8.29
장소 홍대 일원 45여개 실내외공연/
전시장 및 거리
규모 258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꿈트는 예술을 나누는 사람,
신선한 작품이 피막이는 공간,
새로운 시도를 맞보는 시간

- 13 기간 2010.8.12 ~ 8.28
장소 서울 홍대앞 실내외 40여 곳
예술창작 공간 및 도심
규모 300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예술가 그리고 공간

- 14 기간 2011.8.11 ~ 8.27
장소 서울 홍대앞 창작공간 및 거리일대/
도심 일원 10여 곳
규모 250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개인으로서의 예술가,
공동체로서의 예술가

- 15 기간 2012.8.15 ~ 9.1
장소 서울 홍대앞 창작공간 및 거리일대/
도심일원 10여곳
규모 100개 문화예술단체 참가/
개인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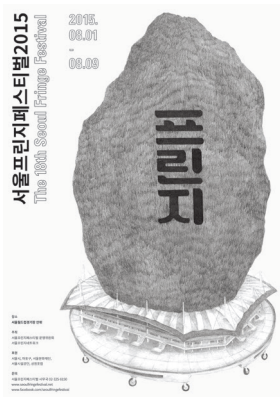
예술로 사람을 만나다

- 16 기간 2013.8.29 ~ 9.14
장소 서울 홍대앞 창작공간 및 거리일대/
서울월드컵경기장 일대
규모 140개 문화예술단체 참가/
개인 참가



17세, 절대반역

- 17 기간 2014.8.15~8.30
장소 서울 홍대앞 창작공간 및 서울월드컵경기장 일대
규모 89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상암예술경기장 - 프린지 크루즈

- 18 기간 2015.8.1~8.9
장소 서울월드컵경기장
규모 57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프린지 크루즈(Fringe Cruise)

- 19 기간 2016.7.23 ~ 7.30
장소 서울월드컵경기장
규모 51개 문화예술단체/개인 참가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운영위원회

박해성 오성화 정진세
홍은지

프로그램

강경호 박한결 백운철
선명균 성수연 오성화
정진세 채민 홍은지

사무국

사무국총괄
이은주

기획팀장
박진형

기획팀

김보민 김형민 최영선

공간제작&디자인

이미소

홍보팀

김성현 남하나 박수진
백교회 정다영

운영팀장

독고진

운영팀

김은휘 배수용

프린지클럽

남하나 독고진

행정&회계

박단비

무대총괄

강경호

무대감독

박정식 장영철 최현서

백운철

디자인

공간디렉터

장성진

공간기술지원

이태용 박소형 양혜원

편집디자인

스튜디오 아트스트

(이수향 하지훈)

사진

김명집 김윤정 이현주

영상

삼인칭시점

(김태오 김태환

이창식)

인디스트

예술가지원

강하나 구자령 김가령

김도현 김민경 김소명

김지수 김지수 김현정

김화연 모성우 박경연

반현지 손지은 심계현

심현정 윤선영 이유정

이상형 이승재 임혜정

장효선 정혜미 전진희

조아라 최진령 하민재

한상인 홍수현

공간제작

김용천 김호진 박주연

신비한 오찬미 정해미

콘텐츠제작

김미선 김민제 김호경

남민지 노유지 박준형

윤나은 임소윤 전혁주

정빛나 정승림 조소영

최수미 최은하 한정애

캠페인이벤트

김민정 김예지 오지현

임정희 정지은 조성익

종합안내

김지윤 김현조 이동연

이재영

축제운영본부

김민수 김세연 김수민

김채연 남지윤 변수진

부혜영 서승현 우소연

이유진 이현규 정상진

최윤정 탁현주

프린지클럽

손민호 정지민

프로그램 협력

고대훈 신일호 안종민

안현숙 엄정애 정세영

정창윤 최은미

협력

독립예술웹진인디언밤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문화뉴스 예술배달부

한미회계법인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부 SR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인디엔피

Special Thanks To.

박정우 이수영 정인정

(서울시설공단)

주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운영위원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후원

마포구

서울문화재단

서울시설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오시는 길

주소 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

지하철 안내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2,3번 출구

버스 안내

마을 마포.08

지선 7011, 7013A, 7013B,

7715, 7733, 7019

간선 271, 571, 710

광역 9711A, 9711B

버스 이용의 경우

710(간선), 7019(지선), 7715(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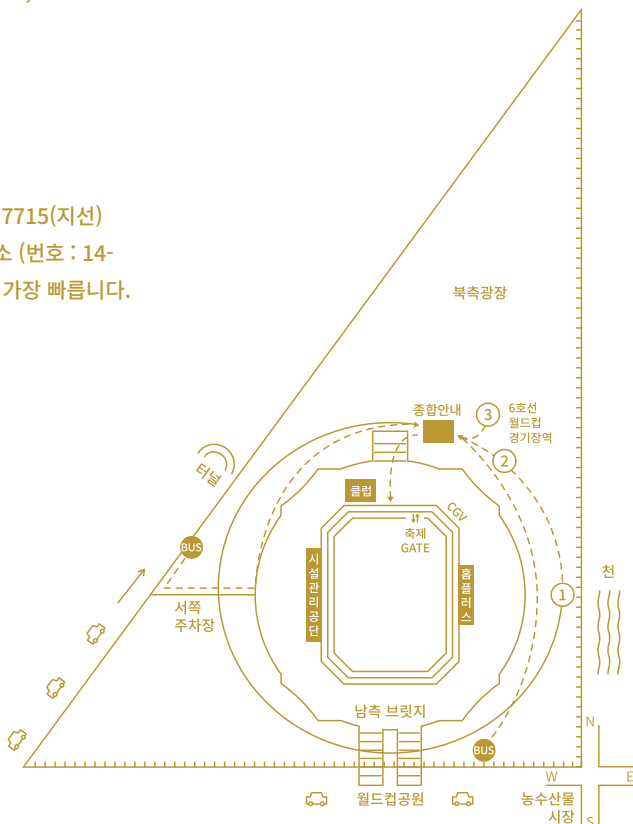
월드컵경기장 서측 정류소 (번호 : 14-105)에 하차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차 안내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측 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서측 주차장의 경우 5분 150원(소형차 기준)의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 오실 때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합니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후원하기

“프린지를 응원합니다”

19년 전, 예술가들이 모여 스스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큰 무대에 오르거나 화려한 경력이 없어도 예술가라면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98년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된 독립예술제는 자유참가라는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서울프린지페스티벌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년이라는 역사에서 ‘프린지’라는 가치를 지지하는 분들의 후원을 시작으로 자발적인 예술 표현의 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술적 시도를 평가 받지 않고 예술을 표현할 수 있고, 누구나 아티스트로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프린지의 가치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프린지에 후원하세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을 응원하는 이야기와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축제의 존립이 위태로운 요즘, 예술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술가의 첫 시도를 응원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예술의 다양성을 존중 받을 수 있기 위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술가들이 축제 속에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히 뒤에서 기둥이 되어 지켜주는 후원 덕분입니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을 응원하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축제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공연을 보러오는 것도 후원입니다.

축제기념품을 구매하는 것도 후원입니다.

응원의 한마디를 보내는 것도 후원입니다.

예술가, 관객, 일꾼, 그리고 후원자로서 축제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1. CMS 정기후원

후원방법: 서울프린지네트워크 홈페이지

www.seoulfringe.net 온라인 후원가입

후원계좌: 우리은행 298-312236-01-108

(예금주: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매월 25일에 지정된 금액이

서울프린지네트워크 계좌로 자동이체 됩니다.)

*일시후원도 가능합니다.

2. 온라인후원 / 네이버 해피빈

후원방법: 네이버에서 해피빈 충전 후 프린지

해피로그에 기부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

seoulfringe

*기업후원문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seoulfringe@hanmail.net / 02-325-8150

예매정보

입장권 가격

1일권 30,000원

전일권 50,000원

(7/19-7/22 전일 공연 관람)

할인

프린지매니아(1+1) 30,000원

지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티켓, 리플렛,

프로그램북, 사진 등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자료 현장에서 증빙/

티켓 2매 제공

마포구지역민 20,000원

마포구 주민 및 직장인, 신분증, 사원증,

명함 등 현장에서 증빙

장애인 20,000원+1인 초대

동반 1인 초대,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단체 20,000원

1일권 20인 이상 동시 구입시 자동으로

할인 적용 (부분취소 불가)

청년 20,000원 (만19세~만24세)

93.01.01~98.12.31 출생자

청소년 10,000원 (만13세~만18세)

99.01.01~04.12.31

예술인 15,000원

본인에 한함. 참여 프로그램북, 리플렛,

작품 사진 등 현장에서 증빙자료 확인

티켓판매처

티켓예매 및 공연예약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

www.seoulfringefestival.net

티켓예매

공연 관람일 1일 전 오후5시까지 예매 가능

사전 예약

온라인 공연별 사전예약 기간:

7/1(토) 14시 - 7/18(화) 17시

현장티켓

7/19(수) - 7/21(금) 14시부터

7/22(토) 13시부터

북측광장 종합안내소에서 판매

티켓문의

070-7092-8172

